ISSN: 2635-6104

북 극 연 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2 MAY 2023 5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 극 연 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2 MAY 2023

발 행 일 : 2023년 5월 31일
인 쇄 일 : 2023년 5월 31일
발 행 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곽성웅, 계용택,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 행 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 쇄 처 : 오크나
주소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 자 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269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1092699)

목 차

▶ Arctic Council 2.0 without Russia ? ------ 1
배규성

▶ 2021년 「핀란드의 북극정책을 위한 전략」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 ------ 10
곽성웅

▶ 러시아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 측정과 비교 ------ 17
윤영민

▶ 일제강점기 1920년대 캄차카반도에 거주한 한인 이주자에 관한 새로운 자료발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을 중심으로- ------- 39
방민규·박솔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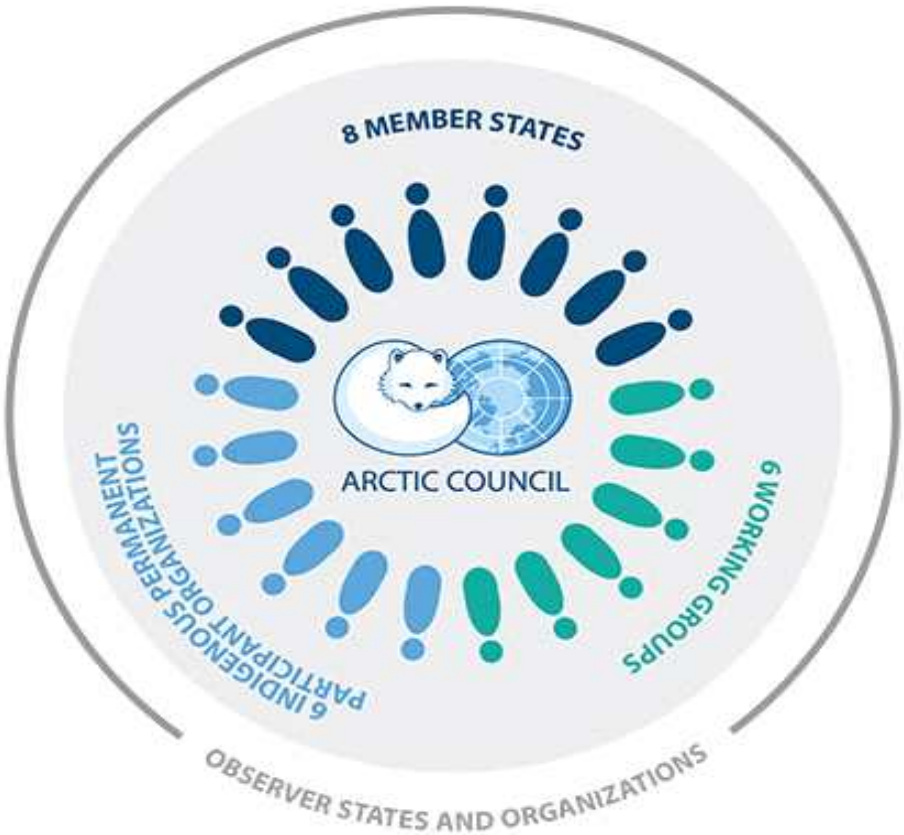
▶ Праздничные традиции у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 47
Д.И. Капарушкина

Arctic Council 2.0 without Russia?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1. ‘Arctic 7’의 북극이사회 보이콧(Boycott)? 일시중단(Pause) ?

<그림 1. 북극이사회의 구성>



8개 회원국, 6개 워킹그룹, 6개 영구회원기관(원주민), 13개 옵저버 국가와 25개 기관들. https://arctic-council.org/

미국 국무부는 2022년 3월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2.24.)에 따른 북극이사회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

> 캐나다, 덴마크(왕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북극을 포함한 국제 협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극지 협력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지속적인 가치를 확신하며 이 기구와 그 업무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극이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원주민을 포함하는 북극권 주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제법에 기초한 주권 및 영토 보전의 핵심 원칙은 오랫동안 러시아가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부간) 포럼인 북극이사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왔다. 러시아가 이러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대표단은 북극이사회 회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각국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북극이사회의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새로운 형식(modalities)을 고려하는 동안 북극이사회 및 그 보조 기구(워킹그룹)의 모든 회의에 대한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회원국 전체인 7개국('Arctic 7')의 북극이사회 보이콧으로 북극에서의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 북극이사회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오픈이 필요하다.

북극이사회에 대한 7개국의 보이콧으로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북극 접촉은 폐쇄되었지만 일련의 비공식 교량은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다.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공식(정부간) (협력)관계 중단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과학 및 기타 채널은 비공식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왜냐

1) Joint Statement on Arctic Council Cooperation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by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3, 2022).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condemn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and note the grave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 the Arctic, that Russia's actions have caused.
We remain convinced of the enduring value of the Arctic Council for circumpolar cooperation and reiterate our support for this institution and its work. We hold a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of the Arctic, including the indigenous peoples, who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important work undertaken in the Council.
The cor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based on international law, have long underpinned the work of the Arctic Council, a forum which Russia currently chairs. In light of Russia's flagrant violation of these principles, our representatives will not travel to Russia for meetings of the Arctic Council. Additionally, our states are temporarily pausing participation in all meetings of the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pending consideration of the necessary modalities that can allow us to continue the Council's important work in view of the current circumstances.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n-arctic-council-cooperation-following-russias-invasion-of-ukraine/ (검색일, 2023.5.1.)

하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협력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극 지역에 대한 새로운 미국 국가 전략[2]의 첫 번째 문장은 거의 인쇄되지 않았다. 상단 문장은 북극의 다른 7개 국가와 협력하려는 미국의 전반적인 열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고 협력적인 북극 지역을 추구한다." 이 핵심 문구는 2023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 행정부에서 새로운 논의가 발의되었을 때 최종 초안의 맨 위에 있었다.

<그림2. 2021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council-foreign-ministers-sign-the-reykjavik-declaration-adopt-councils-first-strategic-plan/ (검색일, 2023.4.28.)

워싱턴에 있는 북극 집행 운영 위원회(Arcti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의 David Balton 대사는 2022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Arctic Circle Assembly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고 협력적인 북극을 상상합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대답이 '예'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성하기가 더 어렵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목표이자 야망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2) 미국의 새로운 북극 전략은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https://www.arctictoday.com/new-u-s-arctic-strategy-focuses-on-geopolitical-rivalries-and-climate-change/ (검색일, 2023.5.9.)

이후로 (북극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지만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의 평화롭고 협력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3)]

그는 또한 가까운 장래에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지 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풀기 어려운 숙제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2022년 북극권 총회에 스며들었다. 각국의 국가 원수, 노르웨이 왕세자, 캐나다 총독, 장관, 대사 및 과학자를 포함하여 약 2,000명의 참석자가 이 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러시아인은 극소수였고, 모스크바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회피하고 있고, 또 피하고자 한다. 협력을 동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가를 고립시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 인권 및 기타 민간 행위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것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총회 연단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연설하는 몇몇 북극 활동가들은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완전히 중단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의 초기 제한 조치 중 일부는 완화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알고 있다.

3. 북극이사회의 새로운 경로 모색

지난 1년 2개월 이상의 북극이사회 중지 이후 이제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극이사회의 동결이 세계적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이사회 보이콧은 비극적이지만 옳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북극이사회는 러시아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러시아의 북극 지방은 북극 지역 육지의 절반을 구성하며 북극해의 광대한 부분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영토 경계 내에 있다. 또한 중국, 인도와 같은 비북극 국가들은 북극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가오펑(Gao Feng) 중국 북극 특사는 북극 총회에서 말했다. "북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북극에서의 중단이나 마비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4)]

---

3) Martin Breum, "Though official Arctic contacts with Russia are closed, an array of unofficial bridges could stay open" (19.October.2022) https://www.arctictoday.com/though-official-arctic-contacts-with-russia-are-closed-an-array-of-unofficial-bridges-could-stay-open/?wallit_nosession=1 (검색일, 2023.5.1.)

4) Martin Breum, "Though official Arctic contacts with Russia are closed, an array of unofficial bridges could stay open" (19.October.2022)

미국 기업 투자자이자 전 미국 북극 연구 위원회(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의장이자 전 알래스카 (육군) 중장인 Mead Treadwell은 러시아 파트너와의 수십 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우리가 그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북극에서 의제가 있다. 그들은 중국과 같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인도와 같은 국가를 위해 일할 엔지니어링 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가 빠져 있으니 러시아에 관심을 두지 말자'는 말은 북극, 환경, 해운, 원주민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연락(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공포가 시작된 이후로 북극의 미래를 걱정하고 조국에 대해 슬퍼하는 러시아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일부는 대놓고 항의하기도 한다.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스파이 위성만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우리가 북극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 즉 환경 보호, 안전한 바다 등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젠가 정부 연락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인맥이 필요하다."

<그림3.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 노르웨이>

2023년 3월 3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조우 심포지엄(Arctic Encounter Symposium)에서 노르웨이의 차기 고위 북극 관리인 Morten Høglund가 북극 이사회 의장직을 위한 새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노르웨이 정부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russia-acting-constructively-regarding-transfer-arctic-council-chairship (검색일, 2023.4.24.)

---

https://www.arctictoday.com/though-official-arctic-contacts-with-russia-are-closed-an-array-of-unofficial-bridges-could-stay-open/?wallit_nosession=1 (검색일, 2023.5.1.)

4. 그러나 협력은 계속된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바렌츠해의 어족 관리에 대해 러시아와 5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덴마크 왕국의 일부인 페로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지정된 항구에서 러시아 어선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러시아 동료들과 민간 협력을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수색 및 구조 협정과 같은 다른 협정은 북극의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협력이 중단되면 러시아 선박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구 북극권 국가들의 선원들도 해난사고나 익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 북극해 어업에 관한 정부 간 협상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계속되고 있다. 북극해의 해저에 대한 법적 권리와 기타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기상 서비스, 민간 원자력 재해 대비, 해안 경비대 작전, 수색 및 구조 및 기타 필수 기능은 정도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북극 기후 과학 프로그램, 해빙 모니터링, 대기 연구, 영구 동토층 관찰, 생물 다양성 연구 등도 마찬가지이다.

북극권 7개 서구 정부들은 크고 장기적인 과학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북극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일시중지"했다. 러시아 파트너와의 공식적인 접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북극권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서 여러 관찰자들은 일시 중지는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수많은 군사 기관, 정부 기관, 교육 및 과학 기관, 민간 기업 및 비정부 활동가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는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협력이 수년 동안 중단된 경우 북극에서 작전(활동)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많은 딜레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러시아인이 참여하는 일부 작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어업, 환경, 스포츠 또는 문화에 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비군사 기관과의 접촉이 지속될 수 있을까? 러시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모든 유형의 공식 연구 프로그램이 금지되는가? 러시아 공식 기관과의 접촉이 중단된 경우에도 미국, 캐나다 또는 유럽 연합 보조금이 어떻게든 러시아인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계속 사용될 수 있을까? 아티스트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협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데이터 흐름이 공식 채널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는가? 서구에서 임시로 일하는 러시아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러시아인과의 Zoom 회의가 허용되는가? 러시아 밖에서 러시아인과의 물리적인 만남이 가능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동료에게 송금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cooperation)”은 어렵다. 따라서 “작동적 공존(operational coexistence)”이 필요하다.

워싱턴 윌슨센터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미 국무부 해양극지국장을 지낸 에반 블룸(Evan Bloom)은 러시아와의 협력보다는 '작동적 공존'의 시기를 예견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북극의 핵심이다. 러시아는 북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없이 북극에서의 공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는 레이캬비크에서 말했다.

북극이사회는 러시아인이 참여하지 않는 70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기후 과학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대규모 다년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극이사회 프로젝트와 모든 EU 프로젝트는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라플란드 대학 북극 센터의 티모 코이부로바(Timo Koivurova) 연구 교수는 북극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핀란드의 북극 전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총리실의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쟁 전의 현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핀란드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EU는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북극권 국경을 넘는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중지시켰다. 이것은 특히 러시아와 1,3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북극 지역의 국제 협력과 연구의 마비가 특히 문제이다. 북극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많은 조치에는 광범위한 국제 협력 및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과 환경은 국경선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캬비크에서 Koivurova는 핀란드-러시아 국경을 가로지르는 많은 강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핀란드 관리와의 인터뷰를 회상했다. 핀란드 관리는 왜 우리가 지금 환경에 벌을 주어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북극이사회와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 같은 기구가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를 동결하더라도 러시아는 북극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러시아는 북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부 간 기구와 조약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극지방의 법적 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이 거기에 있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국제법의 힘을 보여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Koivoruva가 말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미국이 이전에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지를 위반한 것을 보았다. 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끔찍하지만 학자로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5)]

5. 협력의 최우선 순위는 과학이다.

러시아에 대한 많은 연결이 끊어짐에 따라 북극권 데이터가 지구 기후 모델로 유입되는 것이 하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극 연구 기지 네트워크인 INTERACT의 창립자 중 한 명인 IPCC의 노벨 평화상에 포함된 영국의 생물학자 Terry Callaghan은 55년 이상 북극에서 활동했다. 그는 재개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영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많은 장기 협력을 보류해야 했지만 여전히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INTERACT 활동 외에 개별 러시아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이번 협업 중단은 거대하고 비극적인 손실이다. 북극 땅덩어리의 절반에 러시아인들이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극의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지구 나머지 지역의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피드백의 핵심인 땅이다. 우리는 위성 이미지를 보고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지만 왜 변화가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상에 사람이 필요하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30년이 걸렸다. 일단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탄소 배출, 생물다양성 또는 의학에 대한 협력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리가 전혀 없다면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다.”[6)]

미국에서 가장 큰 북극 관측소인 알래스카 대학의 Toolik Field Station 과학 공동 책임자인 Syndonia Bret-Harte 교수도 러시아에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러시아 파트너와 연락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서구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북극이사회의) 중단으로 인해 러시아 과학자들이 자금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학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지식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원격 감지와 같은 일종의 지식을 갖게 되겠지만 매우 귀중한 현장적

5) Martin Breum, “Though official Arctic contacts with Russia are closed, an array of unofficial bridges could stay open” (19.October.2022) https://www.arctictoday.com/though-official-arctic-contacts-with-russia-are-closed-an-array-of-unofficial-bridges-could-stay-open/?wallit_nosession=1 (검색일, 2023.5.1.)

6) Martin Breum, “Though official Arctic contacts with Russia are closed, an array of unofficial bridges could stay open” (19.October.2022) https://www.arctictoday.com/though-official-arctic-contacts-with-russia-are-closed-an-array-of-unofficial-bridges-could-stay-open/?wallit_nosession=1 (검색일, 2023.5.1.)

관점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일시 중지가 오래 지속되면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협업 노력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국민을 고립시키려는 푸틴의 노력 – 저는 우리가 그를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023년 5월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물려받을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이사회의 기후 및 환경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제공: NORWEGIAN POLAR INSTITUTE.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priorities-for-norways-chairship-of-the-arctic-council/id2968499/ (검색일, 2023.4.28.)

2021년 「핀란드의 북극정책을 위한 전략」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1. 핀란드 북극정책 개괄

2021년 6월 18일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의 북극정책을 위한 전략」(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 이하 「북극정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핀란드는 2010년 최초의 북극정책을 발표한 이후 2013년과 2021년에 차례로 북극정책을 계속 공표해 왔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10년 주기의 북극정책 수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기간을 상정한 북극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본 글은 현재 가장 최신의 핀란드 북극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2021년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분석한다.

2. 핀란드「북극정책」(2021) 보고서 작성 배경

핀란드의 북극정책은 2013년 8월 최초로 공개됐고, 이후인 2016년 북극전략에 있어 북극 개발 및 핀란드의 북극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정부의 목표가 새롭게 제시됐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개정된 북극전략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완성됐으며, 2021년에는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주관 하에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신의 북극정책을 수립했다.

북극국가이자 북극이사회 8개 영구회원국 중 하나인 핀란드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북극정책 목표는 건설적인 협력으로 특징되는 평화로운 북극지역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모든 북극국가와 북극에 관심이 있는 비북극국가들은 새로운 혹은 최신의 북극전략을 발표했거나 또는 핀란드의 북극전략을 작성하는 시점에 자신들의 북극전략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기존의 북극전략을 갱신해 왔다.

이번 2021 「북극정책」 보고서에 담긴 핀란드 북극정책의 새로운 전략들은 북극 지역에서 핀란드의 주요 목표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운영자원의 획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2차례

의 핀란드 차기 정부가 수행해 나갈 예정인 2021년의 「북극정책」에는 북극에서 핀란드의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4가지로 구체화했다: 첫째, 기후변화의 완화와 이의 적응력, 둘째, 북극 토착 원주민인 사미족의 주거와 삶의 질 및 권리 향상, 셋째, 전문성과 북극 지역의 삶, 최신 북극 관련 연구, 넷째, 북극 지역 인프라와 물류가 그것이다.

한편, 향후 북극은 안보 방위의 관점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특히 지리학적으로 가장 광대한 북극국가인 러시아는 과거보다 더 활발한 활동으로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비북극국가인 중국도 북극에 대한 경제적이고도 전략적인 관심, 특히 북극의 천연가스와 인프라, 운송항로에 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극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계적 목표와 노력들은 특히나 강대국 간의 이익 분쟁을 창출하고 역내의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이런 북극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정책과 방위협력에 관한 양자와 다자 모두의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북극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핀란드 국방부는 개별적이든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든 북극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북극 지방에서 군사훈련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핀란드의 국력은 북극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고도의 국제적 수준에 다다른 북극 전문성을 소유한 유능한 국방력에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북극이사회의 8개 정식 회원국 중 하나로, 북극이사회는 핀란드 북극정책 속의 핵심적 부분으로 계속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와 8개 회원국은 북극협력의 핵심으로, 핀란드는 주로 기존의 협의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북극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협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핀란드는 북극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이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국인 비북극국가와의 건설적 대화와 협력 촉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노르딕 협력 및 러시아, 미국, 캐나다와의 양자관계 범주 속에서 북극협력을 촉진에도 주목한다. 노던디멘션 파트너십과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 역내 지역 수준의 노르딕각료이사회, 노르딕 이사회 등의 이런 지역 협력 구조들은 북극 협력 속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3. 핀란드「북극정책」(2021) 보고서 내 우선순위와 전략적 조치들

1) 기후 변화 및 이의 완화와 적응

지난 50년 동안 기후변화는 북극에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 3배이상 빠르고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 북극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일례로 라플란드 지표면의 약 30%는 보호지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생태계 상당수는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실태가 합쳐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핀란드는 진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북극 지역의 안정성과 복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완화, 올바른 기후인프라에 대한 투자, 북극 관련 실태 인식 강화,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 등은 노동과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제 협약 및 북극이사회와 바렌츠 유로-이사회와의 협력, 유럽연합의 정책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를 막고 생물할적 다양성을 보호하며, 그 외 다른 북극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해결책의 개발을 지지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한 핀란드의 목표는 북극이사회가 미래의 도구를 실행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그 미래의 도구가 북극해 보호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핀란드가 수립한 전략적 조치들로는 기후변화 완화와 탈중앙화된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올바른 기후 인프라 건설, 순환경제, 바이오경제, 자원효율성 등의 개발, 탄소중립 지자체 네트워크의 확대, 북극 및 인구희소지역의 조건과 영향을 고려하는 화석연료 배제를 위한 진취적인 역할 강화 등 14가지 전략적 조치 등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2) 북극 토착 원주민인 사미족의 주거와 삶의 질 및 권리 향상

(1) 주거와 삶의 질 향상

북극지역 전체에는 약 4백만명의 거주민이 있고, 그 중 10%는 토착 원주민이다. 핀란드의 경우, 보통 라플란드가 핀란드의 북극지역으로 간주되는데, 이 지역은 핀란드 영토의 30%에 해당하며, 전국민의 3%(약 18만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핀란드는 2021「북극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장기전략으로서의 목표를 수립했다. 전략목표의 출발점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경제와 연관된 틀 속에서 정의되는 활동에 대한 북극 거주민의 참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 관점(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검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핀란드 정부는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북극 협력과 핀란드의 북극 정책 준비에 관한 북극 주민과 역내 행위자들의 참여 강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북극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로의 접근하기 위한 삶의 질 경제를 적용하는 등 12가지 전략조치들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2) 거주민과 토착민족으로서 사미족의 권리

사미족(혹은 사프미족)은 유럽연합 내 유일한 북극 토착민족으로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 거주지는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 사이에 걸쳐있는데, 그 수는 전체적으로 7만5천에서 1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

다. 핀란드에서 사미족의 땅은 라플란드 북부(에논테키오와 우츠요키, 이나리 지방 및 소단키라 북부지방)에 위치해있다. 핀란드는 사미의회와 함께 국내외 범주에서 사미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관된 이슈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토착원주민들은 국가와 행정당국에 의한 인종주의와 차별을 경험했고 현재도 여전히 이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사미의회 및 스콜트 빌리지 회의와의 협력 속에서 사미족을 위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미족 문제와 관련하여 핀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 목표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바렌츠 협력 등의 북극 협력에 있어 토착원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개선하고, 둘째, 진실과 화해의 절차를 통해 토착 사미족과 핀란드 정부 간 역사적 사건 검토 및 진실과 화해 창출에 기여하며, 셋째, 사미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계된 이슈에 관한 연구와 국가적 조치들을 사미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은 목표들을 완수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토착원주민의 보다 진전된 국제적인 북극협력에의 참여 가능성을 촉진하고, 핀란드 북극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미족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6가지 전략적 조치들이 선별되어 수립 시행될 것이다.

3) 전문성과 북극 지역의 삶, 최신 북극 관련 연구

(1) 전문지식과 생계

북극에 대한 전문지식은 핀란드에서 널리 이용가능하다. 해양산업과 관광업,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 임업, 보건기술, 건설, 지속가능한 광업, 환경과 에너지 효율, 수산업 분야가 그러한데, 이는 사미족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북극의 전문지식 및 비즈니스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핀란드 비즈니스 업계의 관심은 핀란드 북부와 핀란드의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북극 전 지역이 제공하는 기회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극 개발이 경제개발과 연구, 개발과 혁신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의 일부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순환경제와 그 외 다른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들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북극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국가와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과 이의 이용과 연계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핀란드 기업들은 북극의 해양 산업을 위한 해결책 탐색에서 오랜 전통을 보유해 왔다.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하여 핀란드 정부는 블루 바이오경제를 위한 노르딕 로드맵, 그 중에서도 특히 양식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르딕 협력의 단계적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북극의 관광산업도 성장 가능한데, 관광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증가는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진 고품질의 관광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핀란드는 북극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 직업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들 지원과 북극 내 공급과 수요의 조화 및 새로운 해결책을 탐색하는 연구개발에의 초점 등 8가지 조치들을 추구할 계획이다.

(2) 첨단 연구를 주도하는 전문성

현재 핀란드는 북극 연구에 있어 방대한 고품질의 전문성을 자랑하며 전국에 수많은 연구관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의 연구 기반은 북극국가인 핀란드의 위치를 고려한 높은 수준의 교육체계에 기반하며, 핀란드의 연구진들은 북극 문제와 북극에 관해 초점을 맞추거나 논의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왔다. 현재 북극이사회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북극대학(Arctic University),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의 최북단 대학교들의 네트워크인 아틱파이브(Arctic Five), 유럽 기금 프로그램와 같은 교육연구 네트워크의 감독 하에 연구성과들이 통합되고 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핀란드의 북극연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에 의해 공동으로 수립된다. 핀란드에 있어 북극연구 데이터의 규모와 개방적인 활용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핀란드는 교육, 훈련,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명성있는 국제적인 북극 전문성을 가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핀란드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은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고 북극 지역 관련 연구성과를 생산하며, 그들의 연구 경쟁력에 관해 광범위하게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극 상황과 연관된 연구자금 지원 전반적으로 다양한 행정부처들 간의 협력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개발될 예정인데, 모두 7가지 조치들의 실행을 통해 핀란드의 북극연구 경쟁력을 더욱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프라와 물류

사실 북극 전략 초안 작업과 동시에 핀란드 최초의 국가물류시스템 조성계획이 준비된 바 있다. 이는 2021년 봄에 승인되었다. 물류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와 국제적 접근성, 주변국가와의 물류연결성이라는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의 강화는 핀란드 북부에서 강력히 강조된다. 핀란드 북부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과 장거리 구간이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효과적인 여행과 물류 체인이 중요하다.

핀란드 국가물류시스템 계획의 목표는 물류시스템의 국내 전 지역 접근성이 보장되고, 산업과 출퇴근 교통, 주택거설 등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류네트워크의 서비스 수준은 비즈니스와 출퇴근 교통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국제적 물류의 순조로운 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 역내 중심지와 다른 주요 중심지 간의 연결성을 유지한다는 목표도 비즈니스와 출퇴근 교통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성장하는 관광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북부 지역의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과의 관련이 그러하다. 라울리아(Laurila)-토르니오(Tornio)-하파란타(Haaparanta)를 연결하는 철도구간의 전력화 작업 프로젝트는 핀란드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연결성과 철도운송의 비용효과, 산업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연결성은 핀란드와 스웨덴 북부의 국제운송회랑을 나르비크와 더 먼 극동의 항구를 경유하여 범유럽운송네트워

크 및 바렌츠 지역, 북극해를 연결할 수 있다.

위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4가지의 전략적 조치들이 수립되어 있다. 우선 핀란드는 유럽의 핵심 운송네트워크(TEN-Ts)와 북쪽으로 이의 확장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결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 2021)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제어하는 북해-발틱 구간과 스칸디나비아-지중해 핵심 네트워크 회랑은 북부지역으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북극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과 국제시장으로의 철도운송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송 인프라와 이의 유지와 관련하여 인프라 개발과 운송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가장 최신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기후변화의 영향력 대비 등의 조치들이 준비된 상태이다.

4. 핀란드「북극정책」(2021) 보고서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2021 핀란드 「북극정책」은 전체적으로 북극해 비연안국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북극에서 확보가능한 핀란드의 이익을 높은 수준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물류운송망 연결을 통한 EU와의 개발 협력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북극정책」 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북극해 영토분쟁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핀란드가 스웨덴과는 달리 북극해 영토분쟁 문제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지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핀란드는 북극권 영토분쟁에의 관여가 자국에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不)관여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동 보고서에서 '러시아' 관련 단어의 등장 횟수라 할 수 있다. 해당 단어는 총 14번 등장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7번, 긍정적 의미로 4번, 부정적 의미로 3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단순하게 분석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가치중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북극국가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에서 전혀 부정적인 성격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극정책 관련 핀란드의 대러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Prime Minister's Office, *Finland'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2013: Government resolution on 23 August 2013*, Helsinki: Prime Minister's Office, 16/2013.
· Prime Minister's Office, *The Government's strategy session 26.9.2016: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E PRIORITIES IN THE UPDATED ARCTIC STRATEGY,* Helsinki: Prime Minister's Office, 9/2016.
· Finnish Government, *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 Working group of public servants responsible for Arctic issues Steering group for the Strategy for Arctic Policy,* Helsinki: Finnish Government, 2021.

러시아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 측정과 비교

윤영민
(한양대학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 자원은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 효과적인 사용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로 여겨져 왔다. 최근까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는 공급 측면의 안정성과 가용성, 즉 소위 에너지 안보 개념에 기초한 공급 측면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강조와 그에 따른 에너지 지속가능성 논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에너지 빈곤이나 에너지 격차, 에너지 평등 등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은 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과 개발 전략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고 추진된 지 오래다. 다시 말해, 에너지 빈곤 문제는 이미 한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빈곤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안보 또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빈곤 연구는 에너지 소비자 또는 수입자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산업 및 안보 문제에서 에너지 공급 측면의 중요성으로 인해 러시아와 같이 에너지 부국의 에너지 부문 생산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에너지 부국 국민들이 에너지 자원과 서비스를 비교적 잘 누리고 있다는 편견은 러시아와 같은 거대 에너지 생산국과 수출국의 에너지 빈곤 연구에 주목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의 소득빈곤 문제처럼 에너지 빈곤도 에너지 부국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편 러시아에게 있어 북극지역은 전략적, 경제적, 환경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극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들은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의 80%, 석유 생산량의 17%,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의 90%, 구리 생산량의 60%,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거의 100%, 그리고 희토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GDP의 약 10%,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또한 2만종 이상의 동식물, 균류 및 미생물이 북극 지역에 자생하며 연어 종의 25% 이상, 지의류(地衣類) 종의 12%, 이끼 종의 6%가 북극 지역에 집중[2]되어 있는 등 환경 생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북극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북극의 혹독한 환경, 인프라 미비 등으로 북극 개발에 수반되는 고비용과 리스크로 인해 일부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3]. 국내에서도 북극의 중요성, 특히 북극항로로 대표되는 물류 혁명과 북극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으로 북극 지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국내의 러시아 북극지역 관련한 연구들은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4], 북극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5], 한-러 북극 개발 협력[6], 북극 항로 개발[7] 등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북극 지역 소수민족들에 대한 연구[8], 북극지역의 인구학적 특징[9], 북극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대한 비교연구[10],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11] 등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문사회적 기반연구들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러시아 북극지역 연구의 흐름에서 본 연구는 북극지역 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러시아 북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다룸으로써 러시아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에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

1) Степанов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ич, “Ученые Определ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Новости науки в НИУ ВШЭ, 2022, https://www.hse.ru/news/science/623197855.html.
2) Арктика — территор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РКТИЧЕСКИЙ ФОРУМ,” 2023, https://forumarctica.ru/.
3) 변현섭,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과 한-러 북극 협력의 시사점,” 슬라브연구 37, no. 3 (2021): 69-91.
4) 서현교, “러시아 북극정책의 시대적 특징과 함의,”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3 (2021): 1-39, https://doi.org/10.22892/ksc.2021.25.3.01; 양정훈, “러시아 북극의 전략적 발전 지역 :,”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3 (2021): 69-96.
5) 김보영, 유시호, and 박연희, “기후변화와북극유·가스전개발에관한연구.Pdf,” 자원-환경연구 18, no. 4 (2009): 787-813;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 / 물류 전쟁 : 현황과 이슈,” 한국세비리아연구 18, no. 1 (2014): 1-33; 정우리 and 제성훈, “해외 에너지 기업의 관점에서 야말 프로젝트와 슈토크만,” 러시아연구 31, no. 2 (2021): 239-65; 양정훈, “북극 자원의 가치와 전략적 접근 방안 연구 - 러시아 중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2, no. 2 (2018): 55-89.
6) 예병환 and 박종관, “지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 · 러 에너지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2, no. 1 (2018): 81-118; 이상준, “러시아의 북극개발과 한국의 참여전략,” 러시아연구 31, no. 1 (2021): 247-84; 김엄지, 유지원, and 김민수, “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Pdf,” 중소연구 45, no. 3 (2021): 215-69.
7) 김선래, “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Acta Eurasiatica 6 (2015): 37-62.
8) 김현진 and 제성훈, “러시아 북극 원주민의 사회안보와 위협의 안보화 과정 *,” 중소연구 44, no. 2 (2020): 177-215, https://doi.org/10.21196/aprc.44.2.202008.006.
9) 최우익,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 국제.지역연구 28, no. 1 (2019): 29-55.
10) 최우익.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4 (2021): 1-31,
11) 이양경 and 최우익, “러시아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4, no. 3 (2020): 151-92.

1.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1) 에너지 빈곤의 정의

먼저 에너지 빈곤과 연료빈곤의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에너지 빈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의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의미한다면, 연료빈곤은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월성'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12]. 즉, 에너지 빈곤은 적절한 접근이 가능한 에너지원 또는 서비스의 존재 여부 또는 그 정도에 대한 질문이라면 연료빈곤은 존재하는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능력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 에너지 빈곤과 연료 빈곤 중 어느 한가지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 국가 내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같이 물리적으로 거대한 국가에서는 더욱) 소득과 가격에 따른 연료빈곤 문제와 지역 및 인프라 발전 정도에 따른 에너지 빈곤 문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한 지역 내에서 두 문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엄격한 구분은 잠시 미뤄두고 에너지 빈곤 측정에 집중하겠다. 즉, 우리 연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은 연료빈곤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단일한 에너지 빈곤의 개념정의는 없다.[13] 하지만 많은 에너지 빈곤의 정의들은 에너지 소비와 관계된 어떠한 상태 또는 능력의 결핍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에너지 빈곤 역시 일종의 빈곤의 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ouzarovski & Petrovas는 에너지 빈곤을 기본적으로 "사회적-물질적으로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14]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Day et al은 에너지 빈곤을 "감당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충분에 따른 직간접적인 결과로써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15]로 정의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빈곤을 이보다는 단순하게 에너지 빈곤이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난방을 감당할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밖에도 에너지 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이 완전히 합의된 공동의 정의는 없지만, 에너지 빈곤이 한 개인 또는 가구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필요한 능력의 결핍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적절한 상태' 그리고 '어려움의 상태' 또는 'inability'를 정의하고 구성하는 요인들이 한 사회의 연료 및 에너지

12) Judit Mendoza Aguilar, Francisco J. Ramos-Real, and Alfredo J. Ramírez-Díaz, "Improving Indicators for Comparing Energy Poverty in the Canary Islands and Spain," Energies 2019, Vol. 12, Page 2135 12, no. 11 (June 4, 2019): 2135, https://doi.org/10.3390/EN12112135.

13) Sandrine Meyer et al., "Captu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Energy Poverty: Lessons from Belgium,"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0 (June 1, 2018): 273-83, https://doi.org/10.1016/J.ERSS.2018.01.017.

14) Stefan Bouzarovski and Saska Petrova, "A Global Perspective on Domestic Energy Deprivation: Overcoming the Energy Poverty-Fuel Poverty Binar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10 (November 1, 2015): 31-40, https://doi.org/10.1016/J.ERSS.2015.06.007.

15) Rosie Day, Gordon Walker, and Neil Simcock, "Conceptualising Energy Use and Energy Poverty Using a Capabilities Framework," Energy Policy 93 (June 1, 2016): 255-64, https://doi.org/10.1016/J.ENPOL.2016.03.019.

서비스의 가격, 소득 수준, 가구의 특성 및 선호, 주거환경특성, 기후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 있다.

2) 에너지 빈곤의 측정 방법

이상과 같이 에너지 빈곤 정의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빈곤 측정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조하연과 김해동의 분류에 따르면 1세대와 2세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3개 종류 총 12가지의 에너지 빈곤 측정 지표들이 존재한다. 그 구체적인 분류와 내용은 [16]을 참고하길 바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 데이터로 사용된 러시아의 가계동향조사(HBS: Household Budget Survey 또는 ОБДХ: Выбороч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бюджетов домашних хозяйств)[17]를 사용해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몇몇 2세대 지표들과 주관적 지표들은 가구별 필요 에너지량이나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설문 등 질적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6가지 에너지 빈곤율지표의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에너지 빈곤 측정 지표 기준

지표명	에너지 빈곤가구의 정의
TPR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mathrm{Exp}_{energy,\ i} \geq \in come_i \bullet 0.1$
AFCP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disincome_{\ i} \leq disincome_{median} \bullet 0.6$
LIHC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and
MIS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mathrm{Exp}_{energy,\ i} \geq (\in come_i - \mathrm{Exp}_{housing,\ i} - \mathrm{Exp}_{\mathrm{minium},\ i})$
AEPI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and
2M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너지 빈곤가구 $\mathrm{Exp}_{energy,\ i} \geq 2 \bullet Exp_{median}$

: 개별 가구 i의 에너지 지출
: 전체 가구 에너지 지출의 중위값
: 개별 가구 i의 주거비 지출액
: 개별 가구 i의 최저생계비
: 개별가구 i의 소득
: 개별가구 i의 가처분소득
: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16) 조하현 and 김해동, “해외 에너지빈곤 지표 비교、정리 및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입법과 정책 12, no. 1 (2020): 203-38, https://doi.org/10.22809/NARS.2020.12.1.008.
1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тат))

2.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

러시아 북극위원회(Россий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в Арктическом совете)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무르만스크 주(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까렐리아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арелия), 아르한겔스크 주(Архангельская Область), 코미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оми), 네네츠 자치구(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야말-네네츠 자치구(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사하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츳코트카 자치구(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등 9개연방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18]. 러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지역 통계에는 위의 지역들이 모두 구분되어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중 네네츠 자치구는 본 연구의 주 데이터로 사용하는 HBS 조사에서는 아르한겔스크 주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된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역 총계에서는 튜멘 주(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의 일부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되지만 HBS 조사는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Югра와 기타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 지역들이 구분되지 않은 결과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들의 조사 결과가 혼합되어 있는 야말-네네츠 자치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네네츠 자치구는 아르한겔스크 주로 묶어서 형식적으로는 7개 지역, 내용상으로는 8개 북극지역을 다루도록 한다. 상기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들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러시아 북극지역들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지표	전국 평균	무르만스크주	까렐리아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코미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공화국	추콧스키 자치주
면적(1000 km2)	17,125	145	181	590	417	2,367	3,084	722
인구(천명)	146,749	741	614	1,137	821	2,866	972	50
기대수명(년)	60.3	59	59	59	59	59	59	49
빈곤율(%)	12	11	16	14	16	17	18	9
GRDP (10억 루블)	94,831	617	325	890	721	2,692	1,220	95
1인당 월평균소득 (루블)	35,247	44,237	30,854	35,693	35,356	31,739	45,458	83,385
1인당 월 소비지출액 (루블)	28,470	32,510	25,737	29,187	24,639	25,087	34,766	31,846
총고정자산투자액 (백만루블)	19,318,812	171,361	48,159	189,732	114,630	426,491	381,147	25,906
도시화율(%)	74.7	92.2	81.0	78.0	78.0	77.5	66.1	71.5
전력소비량 (백만 kWh)	1,110,050	12,728	7,814	10,138	9,216	54,174	9,731	749
실업률(%)	4.6	5	7	6	7	5	7	4
1월 평균기온(℃)	-	-11.6	-10.6	-13.1	-16.9	-24.2	-34.7	-25.2
7월 평균기온(℃)	-	0.5	1.5	2.2	2	3.9	2.7	-0.5
물가(루블)	16,067	19,020	17,011	17,563	17,172	16,286	20,185	27,932

출처: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19, 2020

18) Россий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в Арктическом совете, “АРКТИЧЕСК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n.d., https://arctic-council-russia.ru/useful/.

러시아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우익[19]의 연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만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우리는 상기한 연방 주체들을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이라는 묶음으로 지칭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인다. 먼저 러시아의 북극지역 연방주체들은 그 물리적 크기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하공화국과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 면적은 각각 러시아 영토 면적의 18%와 14%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절반 이상은 북극지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위도에 위치해있다. 그에 반해 무르만스크주나 까렐리아 공화국의 경우 사하공화국의 2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 규모도 차이가 큰데 가장 인구가 많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추콧스키 자치주의 차이는 50배가 넘는 정도이다. 경제규모 면에서도 위 [표 2]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1인당 소득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반면 기대수명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과 빈곤율이 무르만스크주와 추콧스키 자치주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보다 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눈에 띈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무르만스크주와 사하공화국, 추콧스키 자치구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까렐리아 공화국이 가장 가장 소득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지표는 도시화율인데, 1인당 소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사하공화국과 추콧스키 자치구의 도시화율이 다른 북극지역들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경제지표들과 지역별 에너지 빈곤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표 3] 북극지역 연방주체들의 산업구조, %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농수산	채굴	합계	제조	건설	유틸리티	합계	민간	공공	합계
전국 평균	4.1	13.5	17.6	16.8	5.4	3.5	25.7	44.1	12.6	56.7
무르만스크주	12.4	10.3	22.7	17.9	7.1	3.9	28.9	29.3	19.1	48.4
까렐리아공화국	5.4	18.8	24.2	18.4	3.4	3.3	25.1	31.1	19.6	50.7
아르한겔스크주	3.5	32.3	35.8	15.5	4.9	2.3	22.7	27	14.5	41.5
코미공화국	1.5	43.8	45.3	9.2	4	2.8	16	25.4	13.3	38.7
크라스노야르스크	2.4	22.4	24.8	36.3	3.3	3.7	43.3	22.4	9.5	31.9
사하공화국	1.4	50.6	52	1.1	9.6	3.6	14.3	21	12.7	33.7
추콧스키 자치주	3.4	39.6	43	0.3	7.9	12.2	20.4	14.7	21.9	36.6

출처: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19, 2020

19) 최우익,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4 (2021): 1-31, https://doi.org/10.22892/ksc.2021.25.4.01.

3. 북극지역 에너지 빈곤의 측정과 지역간 비교

1) 북극지역 에너지 빈곤율 측정

우리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러시아 통계청의 ОБДХ 2019를 주 데이터원으로 사용한다. 이 조사는 러시아 통계청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설문조사로 러시아 모든 연방주체에 속해있는 4만 7천 8백 가구의 자발적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이 중 우리 연구가 사용한 항목과 각 항목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4] 에너지 빈곤율 측정 사용 데이터

번호	변수명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가구원수	명	12	1	2	1
2	16세 미만 가구원수	명	0	8	0	1
3	연금수령 여부	0 / 1	-	-	-	-
4	소득(명목)	루블	1	4,484,462	123,169	92,258
5	10분위 소득그룹	1~10	-	-	-	-
6	최근 3개월 평균 주거비	루블	-	142,000	1,244	6,992
7	가스 소비액	루블	-	30,483	100	266
8	도시가스 소비액	루블	-	13,000	7	66
9	온수 소비액	루블	-	18,831	246	417
10	난방비	루블	-	33,671	967	1,278
11	전기요금	루블	-	19,494	375	454
12	최저생계비	루블	7,257	185,796	27,763	16,583
13	가처분소득	루블	9,229	4,483,565	121,060	91,683
14	총 에너지서비스 지출액	루블	0	35,516	1,695	1,826

출처: HBS 2019

위 [표 4]에서 1번부터 11번까지의 데이터는 Household Budget Survey의 오리지널 데이터로 분석 대상이 된 개별 가구들의 특징과 경제적 상태, 그리고 에너지 비용 지출액을 나타낸다. 1번은 현재 가족 구성원의 수를 나타내며 2번은 가구원 중 16세 이하 유아 및 청소년의 숫자를 나타낸다. 3번 연금수령 여부는 예/아니오로 0 또는 1로 나타나는 이산변수이며, 4번은 가구의 현금 수입금액으로 지난 3개월간 현금 수입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5번은 개별가구의 소득 10분위 기준 분류로 1분위 에서 10분위까지 명목변수로 나타나며, 6번은 주거비로 지난 3개월간 주거비 지출 평균값을 사용한다. 7번부터 11번까지는 주거용 에너지 금액으로 역시 월평균값을 사용한다. 12번부터 14번까지는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공한 데이터다. 12번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구성원 특징을 반영해 러시아 통계청의 2019년 분기별/지역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용해 개별 가구별로 계산되었다. 가처분 소득 역시 개별 가구의 소득에서 주거비와 에너지 지출을 제한 값으로 루블로 표시되며, 총에너지 서비스 지출액액은 개별 에너지 지출액을 합한 값이다.

HB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 정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측정 결과만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진행하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TPR, ACFP, MIS, LIHC, AEPI, 2M등의 주요 에너지 빈곤 지표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북극지역 및 북극지역외 러시아 평균 에너지 빈곤율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

	TPR	AFCP	MIS	AEPI	LIHC	2M
북극지역외 전국 평균	0.5	17.2	0.5	4.0	4.0	28.5
무르만스크 주	0.2	0.7	0.2	0.3	0.3	30.4
까렐리아 공화국	0.6	12.2	0.7	5.3	5.3	37.5
아르한겔스크 주	0.6	10.1	1.4	2.6	2.6	22.2
코미공화국	1.6	11.1	0.9	8.5	8.4	49.1
크라스노야르스크	0.8	10.9	1.1	3.2	3.1	21.4
사하공화국	0.2	3.8	0.7	0.8	0.8	16.7
추콧스키자치구	0.4	3.2	1.9	1.1	1.1	24.6
카자흐스탄[20]	28	-	-	-	1	-
캐나다[21]	6.2	-	18.1	-	-	-
스페인[22]	15	-	9	13	8	-
영국[23]	15	-	-	-	-	-
프랑스[24]	17	21	-	-	9	-
독일[25]	30	-	10	-	14	11.4
벨기에[26]	-	-	-	-	15	-
일본[27]	8	-	-	-	-	-
한국[28]	10	-	-	-	-	29.2

출처: 러시아의 값은 저자가 측정. 그 외 국가들은 기존연구.

20) A Kerimray et al., “Causes of Energy Poverty in a Cold and Resource-Rich Country: Evidence from Kazakhstan,” Loc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Justice and Sustainability 23, no. 2 (2017): 178–97, https://doi.org/10.1080/13549839.2017.1397613.

21) Mylene Riva et al., “Energy Poverty in Canada: Prevalence, Social and Spatial Distribution,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81 (November 1, 2021): 102237, https://doi.org/10.1016/J.ERSS.2021.102237.

22) José Carlos Romero, Pedro Linares, and Xiral López, “The Policy Implications of Energy Poverty Indicators,” Energy Policy 115 (April 1, 2018): 98–108, https://doi.org/10.1016/J.ENPOL.2017.12.054.

23) Catherine Waddams Price, Karl Brazier, and Wenjia Wa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Fuel Poverty,” Energy Policy 49 (October 1, 2012): 33–39, https://doi.org/10.1016/J.ENPOL.2011.11.095.

24) Bérangère Legendre and Olivia Ricci, “Measuring Fuel Poverty in France: Which Households Are the Most Fuel Vulnerable?,” Energy Economics 49 (May 1, 2015): 620–28, https://doi.org/10.1016/J.ENECO.2015.01.022.

25) Peter Heindl, “Measuring Fuel Poverty: General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 to German Household Data,”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71, no. 2 (December 24, 2015): 178–215, http://www.jstor.org/stable/24807488.

26) Meyer et al., “Captu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Energy Poverty: Lessons from Belgium.”

[표 5]의 다른 국가들의 각 에너지 빈곤 지표 측정결과는 각각 다른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우리가 측정한 러시아의 북극지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다만 각 빈곤 지표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어떠한 수준에서 나타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여기자. 러시아 에너지 빈곤 측정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AFCP를 제외하고 측정 지표의 종류와 관계 없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듯 TPR과 MIS로 측정된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율은 약 0.5%와 1%로 절대적 기준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매우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LIHC와 AEPI로 측정한 결과 역시 각각 4% TPR에 비해서는 높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두 지표의 결과는 러시아에서는 차별성이 없음을 보인다. 실제 개별 가구를 확인해본 결과 러시아에서 이 두 지표는 거의 같은 가구들을 에너지 빈곤 가구로 식별한다. AFCP로 측정한 결과만이 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M의 경우 북극을 제외한 러시아 전국 평균에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TPR과 MIS는 러시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표 4]에서와 같이 TPR로 측정된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율은 절대적으로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나 모두 지나치게 낮게 나온다. 러시아의 낮은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가격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빈곤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휘발유 소매 가격은 스페인이 리터당 1.26달러, 프랑스에서 1.39달러, 독일에서 1.39달러, 벨기에에서 1.43달러, 일본에서 1.06달러였던데 반해 러시아에서는 0.59달러로 러시아의 연료 가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2019년 기준 kWh당 전력 가격도 스페인 26센트, 영국 17.7센트, 프랑스 13.6센트, 독일 25.6센트, 벨기에 16.7센트, 일본 23.7센트에 비해 러시아에서는 5.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료가격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러시아의 TPR과 MIS값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두 지표의 측정값은 그 신뢰도를 충분히 의심할 만큼 지나치게 낮으며, 두 지표의 상대적 장점인 단순성이 오히려 이 두 지표가 러시아에 적용하기 부적합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이 두 지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에너지 빈곤 가구 식별에서 LIHC와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AEPI도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 제외하도록 한다.

둘째, 각 지표별로 식별한 에너지 빈곤가구들에 오식별과 같은 노이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붙임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AFCP와 LIHC는 일부 고소득 가구를

27) Shinichiro Okushima, “Measuring Energy Poverty in Japan, 2004-2013,” Energy Policy 98 (November 1, 2016): 557-64, https://doi.org/10.1016/j.enpol.2016.09.005.

28) Taeyeon Yoon, Eunsol Lee, and Guangsu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Poverty Estimation Methods Using Micro-Household Data,”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18, no. 1 (2019): 33-5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646505.

에너지 빈곤 가구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장 느슨한 식별기준을 가진 2M의 경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중간 소득그룹과 고소득 그룹을 에너지 빈곤 그룹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오식별 케이스를 제거해야 러시아 북극지역의 에너지 빈곤 가구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핵심 에너지 빈곤가구의 식별

[표 6] 지역별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의 특징

지역	핵심빈곤율 (%)	도시화율 (%)	가구원수 (명)	미성년 자녀수(명)	은퇴가구 비중 (%)	현금소득 (루블)
전체평균	3.7%	81%	3	1	24%	72,774
무르만스크 주	0.2%	100%	5.0	3.0	0%	115,971
까렐리아 공화국	4.5%	89%	2.8	0.7	29%	69,205
아르한겔스크 주	2.4%	57%	3.6	1.1	23%	87,902
코미공화국	7.9%	53%	2.9	1.0	22%	66,718
크라스노야르스크	2.7%	67%	3.1	1.0	14%	69,759
사하공화국	0.5%	44%	3.8	1.6	0%	85,295
추콧스키자치구	0.9%	77%	3.7	1.3	0%	95,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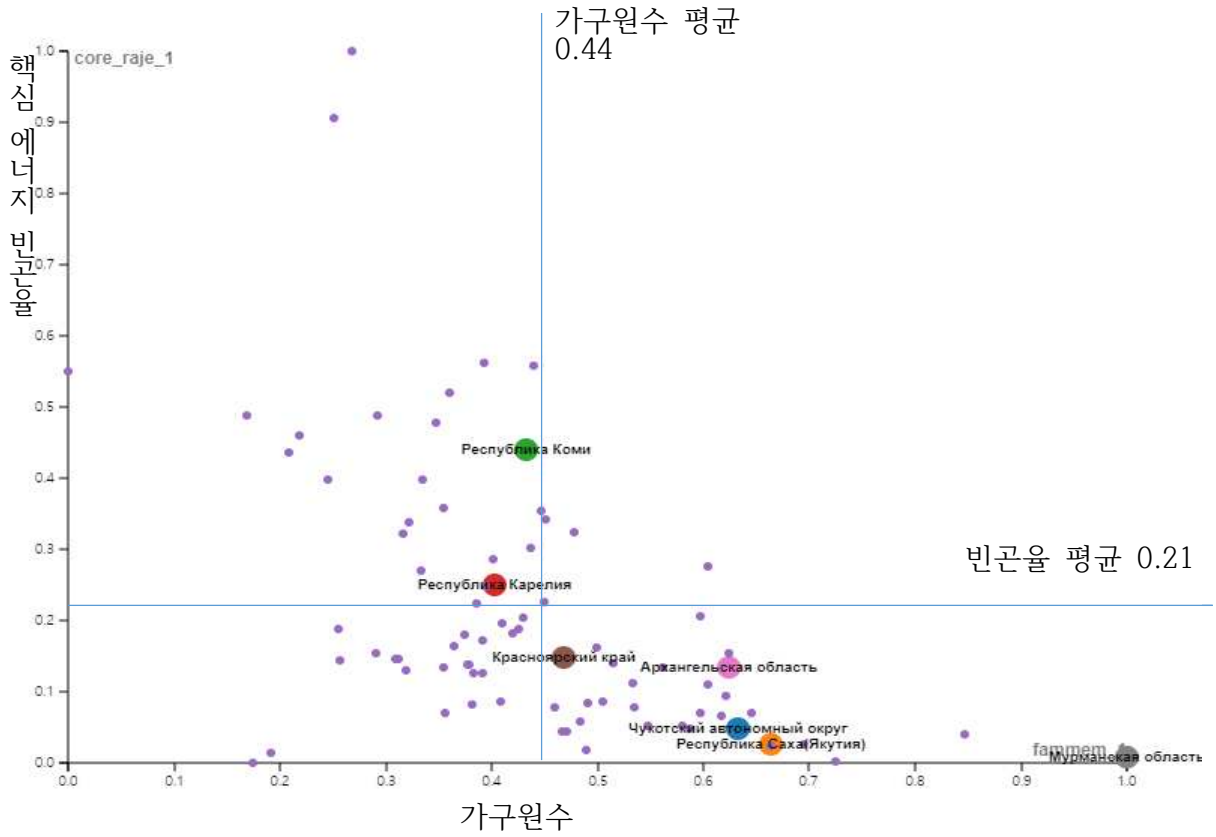
출처: 저자, HBS 2019

전술한 지표의 과소식별 문제나 오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연구되어오지 않은 러시아 북극지역의 에너지 빈곤이라는 주제를 제안하고 최초 연구를 시작한 본 연구에서 소화하기에는 무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종의 필터링 방식을 통해 러시아 북극지역의 에너지 빈곤가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우리가 측정한 에너지 빈곤 지표들 중 유효한 3가지 측정지표, 즉 AFCP, LIHC, 그리고 2M에 의해 각각 에너지 빈곤가구로 식별된 가구들 중 3지표 모두에 포함되는 가구들을 추려냈다.

그리고 이 중 소득 1, 2 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을 핵심 에너지 빈곤가구로 정의했다. 즉, AFCP, LIHC, 2M의 교집합에 위치하는 가구들 중 소득 1, 2분위 가구들만을 가려낸다면 에너지 빈곤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빈곤가구로 식별되면서 소득도 낮은 상태인 가구들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에는 이렇게 가려낸 북극지역의 지역별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빈곤가구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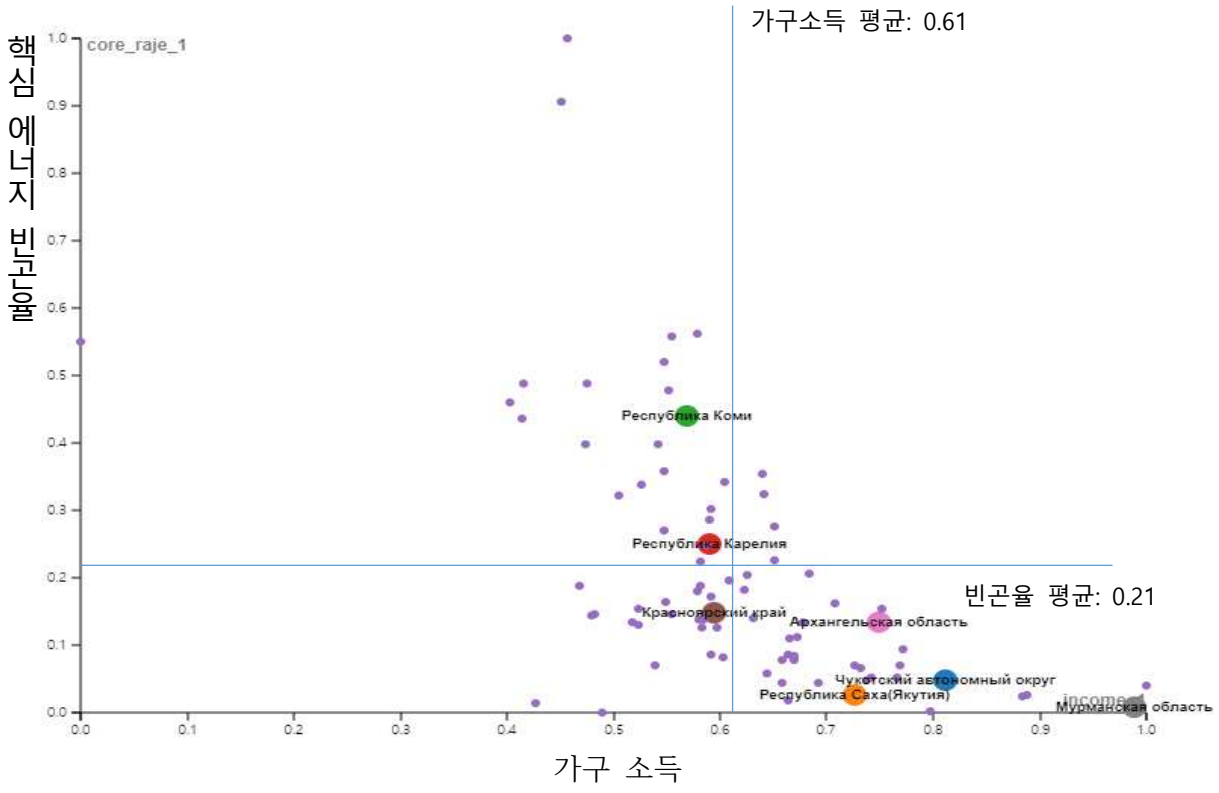
출처: 저자

* 빈곤율과 가구원수는 Max-min 방식으로 정규화된 값임.

핵심 에너지 빈곤율은 지역별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 코미 공화국이 7.9%, 까렐리아 공화국이 4.5%로 전국 평균인 3.7%보다 높게 나타나고, 아르한겔스크주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가 각각 2.4%와 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한편 무르만스크주, 사하공화국, 추콧스키자치구 등은 1% 이하의 낮은 핵심 에너지 빈곤율을 보인다. 즉, 앞서 예비적으로 살펴보았던 개별 에너지 빈곤지표의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핵심 에너지 빈곤율에서도 러시아의 북극 지역들은 공통되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지역은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을 보이지 않고, 북극 지역 상호간에도 핵심 에너지 빈곤율이 매우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 핵심 에너지 빈곤가구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들도 마찬가지이다. 도시화율, 가구원수, 미성년가구원수, 은퇴자가구 비중,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러시아 북극지역의 핵심 에너지 빈곤가구들은 전체 평균과 구분되거나 서로 공유하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 북극 지역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북극지역들이라는 그룹의 시각에서 보다는 전체 러시아 지역에서 북극 지역들이 어떤 특징과 위치를 갖는지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림 1]은 지역별 에너지 빈곤율과 가구원수를 산점도로 표시한 것이다. 북극 지역들은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값은 시각적 비교의 용의성을 위해 0 – 1 사이 값을 갖도록 정규화된 값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특징은 가구원수와 핵심 에너지 빈곤율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분석을 거치기는 어려우나 간단한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붙임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러시아 지역들 중 북극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구원수가 많고 핵심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미성년 자녀수와 핵심에너지 빈곤율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가구원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원수와 빈곤율의 역관계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구원수의 증가는 경제활동 가구원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가구 소득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또는 가구원수의 증가가 단위 거주면적당 집적도를 높여 난방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식의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한 가구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해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실증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가구 소득



출처: 저자

* 빈곤율과 가구소득은 Max-min 방식으로 정규화된 값임.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소득은 더욱 분명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북극지역들의 경우 아르한겔스크 주, 사하공화국, 추콧스키 자치주, 무르만스크 주 등 4개 지역은 가구 소득이 높고 빈곤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특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4개 북극지역들은 고소득-저빈곤 그룹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크라스노야르 변경주는 핵심 에너지 빈곤율은 평균보다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가구소득도 낮은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저빈곤율-저소득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코미공화국과 까렐리아 공화국은 고빈곤율-저소득 그룹에 속한다. 그룹 내에서 코미 공화국은 중간 정도의 빈곤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보이는 것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카렐리아 공화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과 높은 소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북극지역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구원수와 소득 면에서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공통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가구원수와 소득이 핵심 에너지 빈곤율에 대해 갖는 역의 관계 러시아 모든 지역들에서 분명하고 북극 지역들이 이러한 큰 경향에서 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북극지역들 중 다수가 다른 러시아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고 소득과 가구원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7개 북극 지역 중 5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은 핵심 에너지 빈곤율을 보이며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를 제외하고) 평균 이상에 위치한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핵심에너지 빈곤율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붙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핵심 에너지 빈곤률과 이들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산점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붙임 2]에서 볼 수 있다. 도시화율은 인프라 발전 정도의 대리지표이다. 해당 지역의 인프라 발전 수준이 높다면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발전 수준 역시 높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발전 정도와 에너지 빈곤율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의 에너지 빈곤이 에너지 접근성 또는 가용성과 관련 있는 '에너지 빈곤'의 문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지역들의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도시화율이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은 러시아 지역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적어도 가용성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은퇴자 가구의 비율은 취약가구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북극지역들은 대페로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까렐리아 공화국과 무르만스크주를 제외하고 평균보다 낮은 도시화율을 보인다. 한편 노동소득이 없는 없는 은퇴자 가구는 소득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에너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논리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리지표이다. 이 역시 일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은퇴자 가구의 연금 수령 여부, 연금 수령액, 각종 생활보조금 등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북극지역들의 특징은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들 중에 은퇴자 가구 비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매우 낮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까렐리아 공화국을 제외한 6개 북극 지역들의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들은 모두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은퇴자 가구 비율을 보인다.

연료가격의 경우 에너지 빈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 역시,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은 에너지 지출액을 주요 구성 요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연료 가격의 수준은 개별 가구의 에너지 빈곤여부 식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하지만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연료 가격과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 2]와 [붙임 3]을 참고 바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낮은 연료가격이다. 러시아의 국내 연료 및 에너지 가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소매 휘발유 가격은 스페인(1.26달러), 프랑스(1.39달러), 독일(1.39달러), 벨기에(1.43달러), 일본(1.06달러), 한국(1.22달러), 러시아(0.59달러) 수준이다. 디젤 소매 가격은 스페인(1.13달러), 프랑스(1.2달러), 독일(1.2달러), 벨기에(1.32달러), 일본(0.88달러), 한국(1.05달러), 러시아(0.55달러) 수준을 보인다. 또한 2019년 기준 kWh당 전력 가격은 스페인(26센트), 영국(17.7센트), 프랑스(13.6센트), 독일(25.6센트), 벨기에(16.7센트), 일본(23.7센트), 한국(11.4센트), 러시아(5.3센트)[29] 순으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나 절대적으로나 매우 낮은 수준의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 기댄 것으로, 러시아는 가즈프롬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과 국내 공급 천연가스의 낮은 가격 간 차이를 유지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30]. 둘째, 가구 사용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의 차이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다른 가정용 난방 및 조리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다. 도시지역은 온수 공급을 통한 난방, 전기 히터 등의 공동 난방형태가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이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조리용 에너지 사용도 한국과 달리 전기의 사용 비중이 높으며 지역과 건축물 연식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도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매우 전통적인 형식의 난방 및 조리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기에 한국에 비해 사용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형태의 균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솔린 가격을 대리변수로 한 연료 가격이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의 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과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가격의 관계는 보다 별도의 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서의 결과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은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의 가격보다는 가구의 소득과 더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북극지역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눈에 띄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사하공화국과 추콧스키 자치주가 핵심 에너지 빈곤율이 매우 낮으면서도 연료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과 핵심에너지 빈곤율과의 상관관계도 찾기 어려웠다. 주택가격은 개별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고 한국식으로 각하면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종 주택 평균가격을 사용했다. 먼저 러시아의 지역별 1

29)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n.d., https://data.worldbank.org/.
30) J Henderson, “Domestic Gas Prices in Russia - Towards Export Netback?,” Publisher’, OIES Paper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11), https://ora.ox.ac.uk/objects/uuid:238177a9-8164-4ef6-917e-898c54301db4.

종 주택 가격은 평균에 강하게 집중되어 분포한다. 따라서 핵심에너지 빈곤율과 어떤 상관관계는 다고 보기는 어렵다. [붙임 2]와 [붙임 3]을 참고 바란다.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비용이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은 조금은 의아한데, 이는 상당부분 러시아의 자가주택 보유비율이 매우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HBS 2019의 조사결과 응답가구의 자가비율은 91%에 달하고 이중 대출조차 없는 자가비율이 81%에 달한다. 이는 유럽 평균인 69.2%[3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결과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 과제들

이상 러시아 북극지역 연방주체들의 에너지 빈곤율을 측정하고 이를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러시아의 북극지역를 포함해 러시아 전지역의 에너지 빈곤율을 적절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기존에 개발된 측정방법론들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 에너지 빈곤율을 앞서 선정한 에너지 빈곤 측정지표들로 측정한 결과 지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시하기 힘든 정도의 오식별이 발생했다. 또한 TPR과 MIS와 같이 단순하고 널리 쓰이는 지표의 경우에는 에너지 빈곤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했다. 이렇듯 기존 지표를 통해 얻은 빈곤율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핵심 빈곤 가구를 식별해 필터링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빈곤율은 가구원수, 미성년 자녀수, 가구 소득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았다. 반면 도시화율, 은퇴자 가구 비율, 연료 가격, 주택 가격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 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북극지역들은 에너지 빈곤에 있어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눈에 띄는 공통점을 공유하거나 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먼저 핵심 에너지 빈곤율에서 북극지역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에너지 빈곤율을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의 북극지역 연방주체들의 핵심에너지 빈곤율은 0.2%(무르만크스 주)에서부터 7.9%(코미 공화국)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굳이 특징을 찾자면, 까렐리아 공화국과 코미 공화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북극 5개 지역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핵심에너지 빈곤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핵심에너지 빈곤가구의 주요 사회경제적 특징에서도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가구원수, 미성년 자녀수, 소득 등과 같이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회경제 요인들에서는 북극지역들이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극지역들 중 다수가 대체로 저빈곤율-고사회경제지표 그룹에 속한다는 점이다. 핵심 에너지 빈곤율-가구원수(그리고 미성년 자녀수)에서 까렐리아 공화국과 코미 공화국을 제외한 북극지역들은 모두 저빈곤율-고가구원수(미성년 자녀수) 그룹에 속했다. 소득에서도 유사하게 아르한겔스크 주, 사하공화국, 추콧스키 자치구, 무르만스크 주 등 4개 지역이 저빈곤율-고소득 그룹에 속했다.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31) EU-SILC survey,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Tenure Status, Type of Household and Income Group,” n.d.,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lvho02&lang=en.

보이지 않은 사회경제 요인들에서도 북극지역들의 차별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북극지역들의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은 도시화 수준을 보여주며 은퇴자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그 외에 주택가격과 연료 가격 등과 같은 가격 요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이 그 사회경제 및 지리환경적 특성에 의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빈곤율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널리 사용되어 온 에너지 빈곤 측정 지표들을 사용해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율을 지역별로 측정하고 이 중 북극지역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특징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알아 보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에너지 빈곤 측정 지표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오식별을 케이스를 포함 하는 등 러시아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에너지 빈곤가구를 식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필터링 방식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양적 소실을 동반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장점을 갖고 있는 기존 지표를 활용한 러시아의 지역별 에너지 빈곤율 측정 방식과 더불어 러시아의 에너지 빈곤율을 적절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숨겨진 빈곤' 문제도 존재한다. 극히 낮은 소득, 극단적으로 낮은 인프라 수준, 감당하기 어려운 연료 및 에너지 서비스 가격 등의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극단적으로 낮아 오히려 에너지 빈곤 지표에 식별되지 않는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고려를 본 연구는 전혀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지역별 에너지 빈곤율 측정과 사회경제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러시아의 북극지역들이 에너지 빈곤 문제에서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일부 요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러시아 북극지역들의 에너지 빈곤율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실증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guilar, Judit Mendoza, Francisco J. Ramos-Real, and Alfredo J. Ramírez-Díaz. “Improving Indicators for Comparing Energy Poverty in the Canary Islands and Spain.” Energies 2019, Vol. 12, Page 2135 12, no. 11 (June 4, 2019): 2135. https://doi.org/10.3390/EN12112135.

Bouzarovski, Stefan, and Saska Petrova. “A Global Perspective on Domestic Energy Deprivation: Overcoming the Energy Poverty–Fuel Poverty Binar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10 (November 1, 2015): 31–40. https://doi.org/10.1016/J.ERSS.2015.06.007.

Day, Rosie, Gordon Walker, and Neil Simcock. “Conceptualising Energy Use and Energy Poverty Using a Capabilities Framework.” Energy Policy 93 (June 1, 2016): 255–64. https://doi.org/10.1016/J.ENPOL.2016.03.019.

EU-SILC survey.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Tenure Status, Type of Household and Income Group,” n.d.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lvho02&lang=en.

Heindl, Peter. “Measuring Fuel Poverty: General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 to German Household Data.”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71, no. 2 (December 24, 2015): 178–215. http://www.jstor.org/stable/24807488.

Henderson, J. “Domestic Gas Prices in Russia - Towards Export Netback?” Publisher’. OIES Paper.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11. https://ora.ox.ac.uk/objects/uuid:238177a9-8164-4ef6-917e-898c54301db4.

Kerimray, A, R De Miglio, L Rojas-Solórzano, and B P Ó Gallachóir. “Causes of Energy Poverty in a Cold and Resource-Rich Country: Evidence from Kazakhstan.” Loc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Justice and Sustainability 23, no. 2 (2017): 178–97. https://doi.org/10.1080/13549839.2017.1397613.

Legendre, Bérangère, and Olivia Ricci. “Measuring Fuel Poverty in France: Which Households Are the Most Fuel Vulnerable?” Energy Economics 49 (May 1, 2015): 620–28. https://doi.org/10.1016/J.ENECO.2015.01.022.

Meyer, Sandrine, Holzemer Laurence, Delbeke Bart, Middlemiss Lucie, and Maréchal Kevin. “Captu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Energy Poverty: Lessons from Belgium.”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0 (June 1, 2018): 273–83. https://doi.org/10.1016/J.ERSS.2018.0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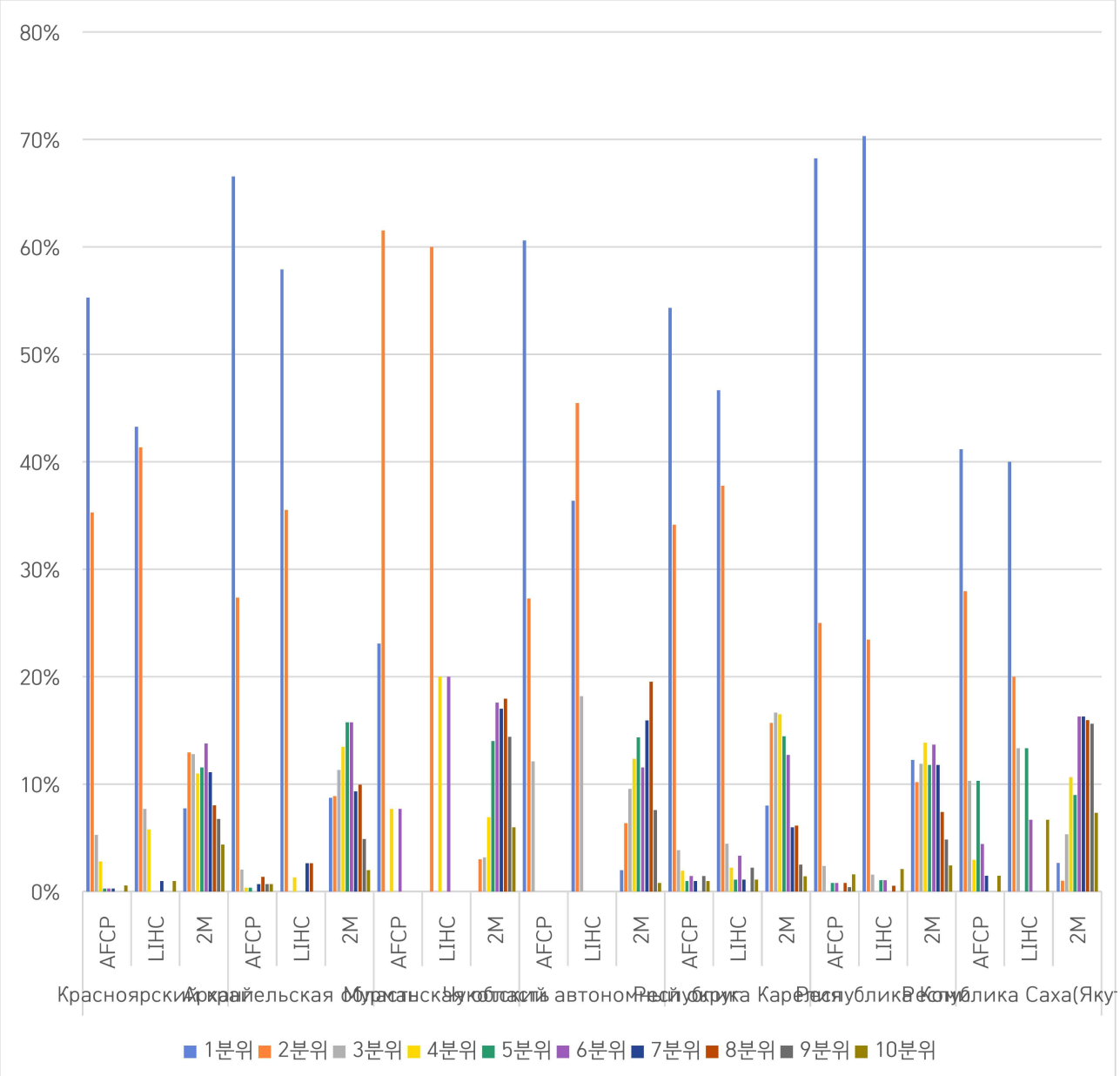
Okushima, Shinichiro. “Measuring Energy Poverty in Japan, 2004–2013.” Energy Policy 98 (November 1, 2016): 557–64. https://doi.org/10.1016/j.enpol.2016.09.005.

Riva, Mylene, Sophie Kingunza Makasi, Philippe Dufresne, Kimberley O'Sullivan, and Megan Toth. "Energy Poverty in Canada: Prevalence, Social and Spatial Distribution,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81 (November 1, 2021): 102237. https://doi.org/10.1016/J.ERSS.2021.102237.
Romero, José Carlos, Pedro Linares, and Xiral López. "The Policy Implications of Energy Poverty Indicators." Energy Policy 115 (April 1, 2018): 98-108. https://doi.org/10.1016/J.ENPOL.2017.12.054.
Waddams Price, Catherine, Karl Brazier, and Wenjia Wa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Fuel Poverty." Energy Policy 49 (October 1, 2012): 33-39. https://doi.org/10.1016/J.ENPOL.2011.11.095.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n.d. https://data.worldbank.org/.
Yoon, Taeyeon, Eunsol Lee, and Guangsu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Poverty Estimation Methods Using Micro-Household Data."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18, no. 1 (2019): 33-5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646505.
Александрович, Степанов Илья. "Ученые Определ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Новости науки в НИУ ВШЭ, 2022. https://www.hse.ru/news/science/623197855.html.
Арктика — территор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РКТИЧЕСКИЙ ФОРУМ," 2023. https://forumarctica.ru/.
Россий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в Арктическом совете. "АРКТИЧЕСК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n.d. https://arctic-council-russia.ru/useful/.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тат). "Выбороч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Бюджетов Домашних Хозяйств," n.d. https://rosstat.gov.ru/.

김보영, 유시호, and 박연희. "기후변화와북극유·가스전개발에관한연구.Pdf." 자원-환경연구 18, no. 4 (2009): 787-813.
김선래. "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Acta Eurasiatica 6 (2015): 37-62.
김엄지, 유지원, and 김민수. "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Pdf." 중소연구 45, no. 3 (2021): 215-69.
김현진, and 제성훈. "러시아 북극 원주민의 사회안보와 위협의 안보화 과정 *." 중소연구 44, no. 2 (2020): 177-215. https://doi.org/10.21196/aprc.44.2.202008.006.
변현섭.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과 한-러 북극 협력의 시사점." 슬라브연구 37, no. 3 (2021): 69-91.
서현교. "러시아 북극정책의 시대적 특징과 함의."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3 (2021): 1-39. https://doi.org/10.22892/ksc.2021.25.3.01.

양정훈. “러시아 북극의 전략적 발전 지역 :”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3 (2021): 69-96.
———. “북극 자원의 가치와 전략적 접근 방안 연구 - 러시아 중심 -.” 한국베리아연구 22, no. 2 (2018): 55-89.
예병환, and 박종관. “지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과 한 · 러 에너지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2, no. 1 (2018): 81-118.
이상준. “러시아의 북극개발과 한국의 참여전략.” 러시아연구 31, no. 1 (2021): 247-84.
이양경, and 최우익. “러시아 야말로네네츠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4, no. 3 (2020): 151-92.
정우리, and 제성훈. “해외 에너지 기업의 관점에서 야말 프로젝트와 슈토크만.” 러시아연구 31, no. 2 (2021): 239-65.
조하현, and 김해동. “해외 에너지빈곤 지표 비교 · 정리 및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입법과 정책 12, no. 1 (2020): 203-38. https://doi.org/10.22809/NARS.2020.12.1.008.
최우익.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 국제.지역연구 28, no. 1 (2019): 29-55.
———.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 한국 시베리아연구 25, no. 4 (2021): 1-31. https://doi.org/10.22892/ksc.2021.25.4.01.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 / 물류 전쟁 : 현황과 이슈.” 한국 시베리아연구 18, no. 1 (2014): 1-33.

붙임 1. 북극지역의 소득 10분위별-지표별 에너지 빈곤가구 비중



출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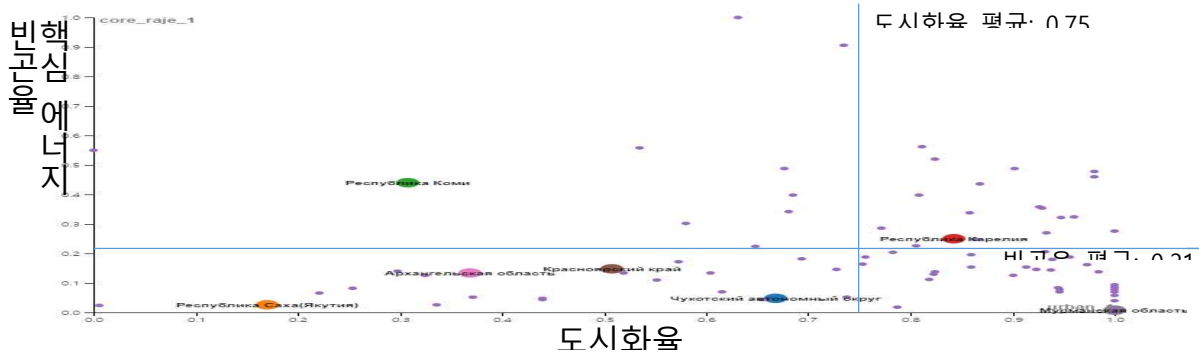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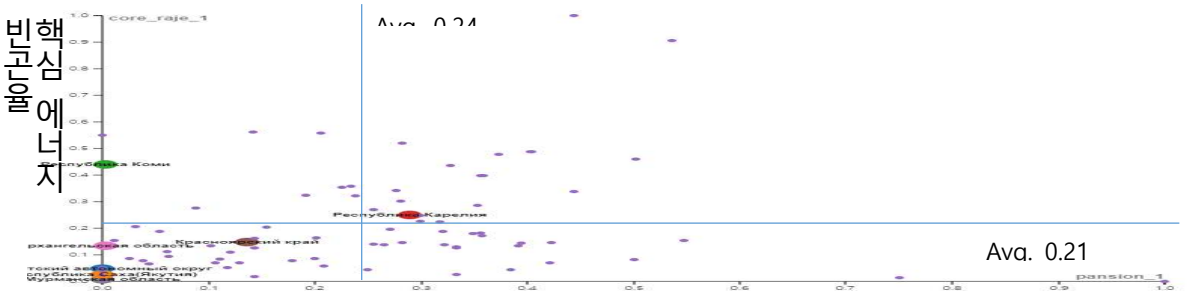
		coraerate	urban	femmem	und18	pasion	income	fuel_prc	housepr
coraerate	Pearson 상관계수	1	.080	-.493**	-.522**	.187	-.562**	-.209	-.118
	유의확률 (양쪽)		.487	.000	.000	.118	.000	.059	.303
	N	82	78	82	81	71	82	82	78
urban	Pearson 상관계수	.080	1	-.268*	-.333**	.060	-.257*	-.214	.092
	유의확률 (양쪽)	.487		.018	.003	.617	.023	.059	.432
	N	78	78	78	77	71	78	78	75
femmem	Pearson 상관계수	-.493**	-.268*	1	.898**	-.732**	.955**	.153	-.298**
	유의확률 (양쪽)	.000	.018		.000	.000	.000	.169	.008
	N	82	78	82	81	71	82	82	78
und18	Pearson 상관계수	-.522**	-.333**	.898**	1	-.629**	.827**	.215	-.137
	유의확률 (양쪽)	.000	.003	.000		.000	.000	.053	.234
	N	81	77	81	81	70	81	81	77
pension	Pearson 상관계수	.187	.060	-.732**	-.629**	1	-.619**	.182	.498**
	유의확률 (양쪽)	.118	.617	.000	.000		.000	.128	.000
	N	71	71	71	70	71	71	71	69
income	Pearson 상관계수	-.562**	-.257*	.955**	.827**	-.619**	1	.199	-.274*
	유의확률 (양쪽)	.000	.023	.000	.000	.000		.073	.015
	N	82	78	82	81	71	82	82	78
fuel_prc	Pearson 상관계수	-.209	-.214	.153	.215	.182	.199	1	.348**
	유의확률 (양쪽)	.059	.059	.169	.053	.128	.073		.002
	N	82	78	82	81	71	82	82	78
housepr	Pearson 상관계수	-.118	.092	-.298**	-.137	.498**	-.274*	.348**	1
	유의확률 (양쪽)	.303	.432	.008	.234	.000	.015	.002	
	N	78	75	78	77	69	78	78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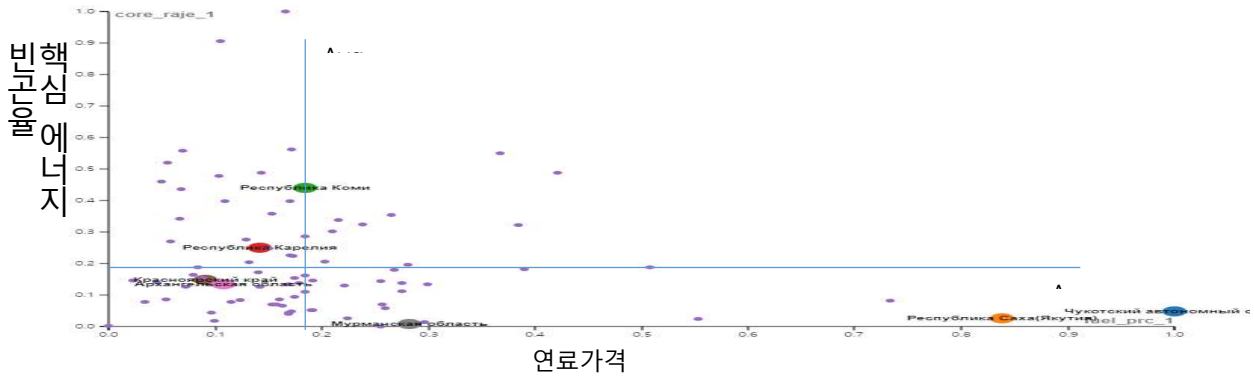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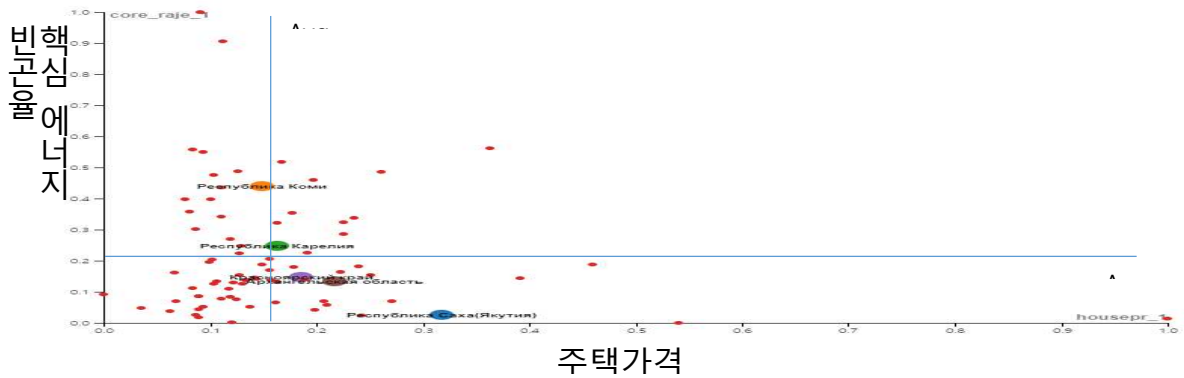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붙임 3.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핵심 에너지 빈곤율과 도시화율,









출처: 저자

* 빈곤율과 가구소득은 Max-min 방식으로 정규화된 값임.

일제강점기 1920년대 캄차카반도에 거주한 한인 이주자에 관한 새로운 자료발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극동의 수산(極東之水産)'을 중심으로-

방민규·박솔희
(국립해양박물관 선임학예사/국립해양박물관 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2023년은 한인[1]들이 러시아로 이주한지 160년이 되는 해이다[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더라면 한러수교 32주년과 함께 양국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해인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1863년 이후에 러시아에 이주한 조선인이 최초로 건설한 마을은 현재의 연해주 변강주 포시에트(Посьет) 구역의 지신허(地信墟, Tezinhe)[3]마을이다. 아마도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전부터 두만강 주변에 살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넘어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4].

이후 1865년에는 추풍(秋風, 수이푼)[5] 지역에도 100여 호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마을이 성립되었다. 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에는 상당한 수의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니콜리스크(Nikol'sk, 현 우수리스크)[6]와 하바롭스크, 사만리,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마을이 개척되었다. 흑정자, 녹둔, 도비허, 남석동, 와봉, 시지미, 아지미, 수청(빨치산스크) 등도 이 시기에 성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초기 이주 조선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7].

---

1) 현재를 기준으로는 한인(韓人)이나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감안하여 본문에서는 조선인(朝鮮人)과 병기한다.
2) 러시아의 니콜라이 페도로비치 부가이 교수는 그의 저서(2004)에서 1864년을 공식적인 한인 이주의 첫 해로 보고 있다. 한국 측 자료에서는 대부분 1863년으로 표기하는 등 논쟁이 다소 있다.
3) 현재지명은 우로치쉐 비노그라드노예(Урочище Виноградное)로 1937년 조선인들이 중앙아사아로 강제이주 되면서 콜호즈로 바뀌었다.
4)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p. 366.
5) 추풍운 소왕령이라 부르던 니콜리스크의 서쪽으로 중국에서 발원하여 연해주로 흘러드는 수분하 일대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지역개념이다.
6) 옛 이름은 니콜리스크우수리스키(Nikol'sk-Ussuriiski, 1895~1935년), 보로실로프(Voroshilov, 1935~1957년)이다.
7) 조선인 이주민 중에는 후에 러시아로 귀화한 이들과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조선인들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로 귀화한 '원호(元戶)'를 중심으로 러시아 여권을 가진 조선인들이 1902년에 32,298명, 1908년에 47,289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조선인들의 연해주이주가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 정미 7조약, 군대해산, 의병 탄압 등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합방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적 망명자들의 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국 러시아인의 이주가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1095년 연해주총독으로 부임한 운테르베르게르(Унтербергер Павел Федорович)였다.[8] 그는 한인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표적인 조치로 먼저 귀화한인들의 권리심사를 강화하고, 어장과 사금장에서 한인노동자들의 취업을 금하고, 러시아국적 한인들에 대한 관유지(官有地)의 임대를 금하는 것 등이 있다[9].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한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수가 이주를 했기 때문이다. 1910년 초반 이주 한인의 수는 대략 5만 정도였고, 1917년경에는 약 100,000명의 이주 한인들이 있었으며, 1932년에는 약 150,00명의 이주민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였다. 1934년 이후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전까지 한인 이주민 수는 약 200,000명을 상회하였다.

미국이민보다 일찍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 이민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새로 발굴된 러시아측의 자료와 관련된 학자들의 관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이주[10], 러시아지역에서의 항일투쟁[11] 같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앙아시아 한인사회 또는 사할린 한인[12]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 연구도 있긴 하지만 특히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자료『극동의수산(極東之水産)』자료를 통해 1920년대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거주했던 한인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데 있다. 특히 일본의 시각에서 한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본문 속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한국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극동의수산』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캄차카반도 거주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산업 관련 전문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수산업에 집중하였는지와 함께 어업 및 통조림 제조 등 기술적인 부분이 서술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한인에 대한 서술부분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전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극동의수산'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한국인구학』제23권 2호, 200, p. 53.
9) 이동언,「노령지역 초기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5, 1991, pp. 205～232.
10) 박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1992
11) 이채문, 앞의 글, p. 40.
12) 이재혁,「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한국시베리아연구』제15권 1호, 2011, pp. 85～135.

Ⅱ. 『極東之水産』개관

1. 역사적 배경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極東之水産』은 조선수산협회(朝鮮水産協會)이 1924년(대정13년) 12월 발간한 수산업 전문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1897년 법률 제45호로 원양어업장려보조법(遠洋漁業奬勵補助法)을 발표하여 조선·러시아령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浦塩]·대만 등지로 출어하는 어선을 보조하여 이를 장려하였다[13)]

『극동의수산』 발간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연안어업은 인구의 증가·산업경제의 발달·문화의 향상 등으로 어장의 협소함이 드러나 이전부터의 영세어업으로는 운영이 곤란해졌다. 이에 포경어업이나 트롤(전인망)어업 등의 원양어업과 조선으로의 출어가 그 대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조산으로의 통어 장려는 국가·각 부·현·조선해통어업조합연합회 및 각 부·현의 수산조합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초기의 통어자는 대부분 일본 서부의 어민으로, 절반이 한 어기에 한 어종을 목적으로 하는 계절적인 출어어업으로 연안의 영세 어업자들이었다[14)]. 그러나 일본의 각종 어업이 조선에서 행해지자 조선의 전통 어업도 급속히 일본식 어법으로 전환되었다.

조선 연안은 일본과 함께 북태평양 서안에서 고등어의 주요 분포지이다. 일본 어부들은 일찍부터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해협을 주요 어장으로 하되, 거제도를 기지로 삼아 본격적인 어장 개발에 착수했다. 1908년 방어진에서 박망(縛網)어업을 시작하고 많은 조선인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이 조선 어업개발사에서 조선인을 고용한 최초의 기록이다[15)]. 하지만 1910년대 후반에는 쇠퇴하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 1922년부터 동력으로 작동하는 건착망(巾着網)이 출현하여 고등어어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극동의수산』의 주된 내용은 캄차카반도의 수산업 현황 특히 연어·송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연어는 동해안의 하구에서 주로 잡히는데 연어어장은 원래 대구와 마찬가지로[16)] 대부분 궁내부의 소관에 속하여 해마다 허가를 받아 조선인이 경영해왔다. 1907년 영흥만의 용흥강(龍興江)에서 2~3조의 통어자가 경영한 것을 최초의 사례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09년 모선식(母船式)에 따른 통어단을 조직하여 원산을 근거지로 각종 어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눈에 띄는 개발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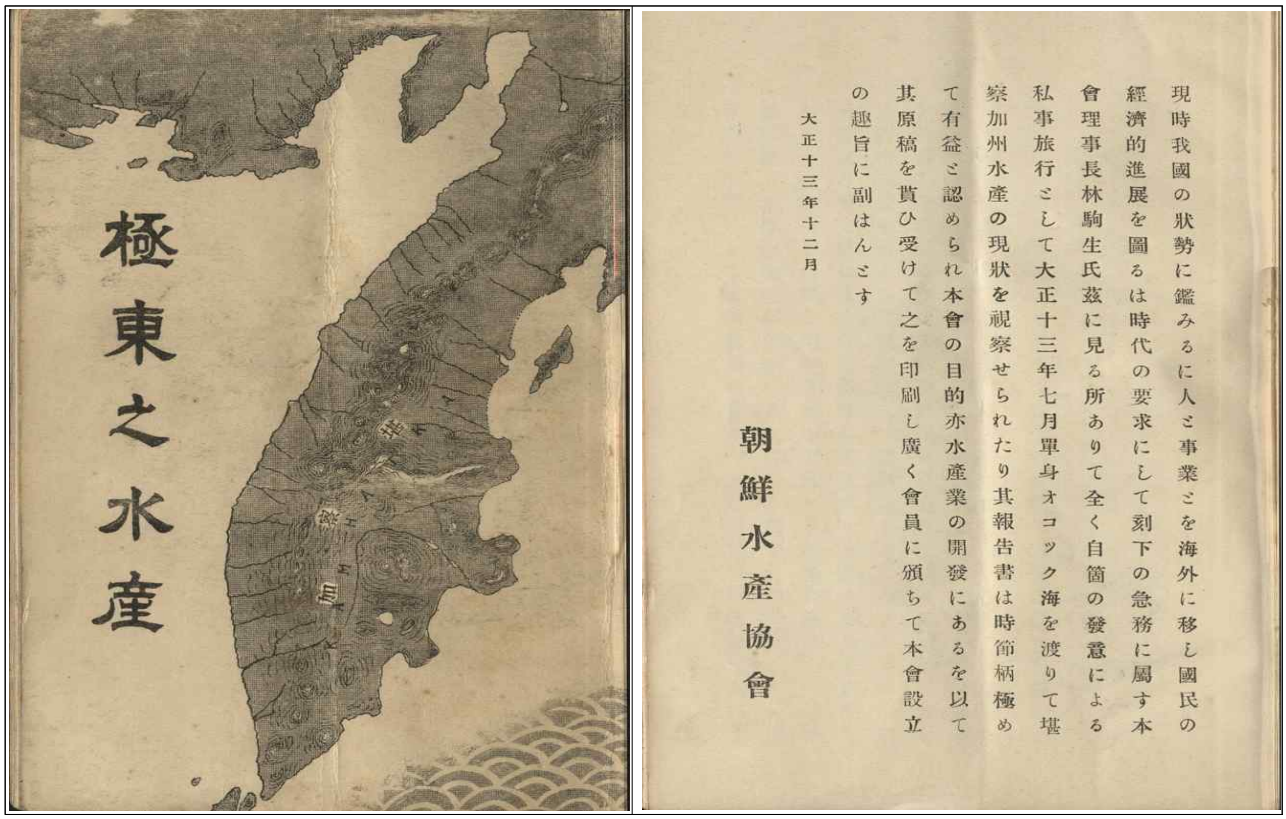
13) 요시다 케이이치(박호원·김수희 역),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019, p. 268.
14) 요시다 케이이치(박호원·김수희 역), 위의 책, pp. 280~281.
15) 1910년대 초기에는 카가와현의 박망업자도 방어진을 근거지로 해서 출어하였다. 1915년에는 27통(256척, 1,620인)으로 증가하였다.
16) 조선 북부의 대구어업은 러일전쟁 전후부터 니가카현 출신의 오오타케 칸이치(大竹貫一)가, 그리고 1908년경부터 아키타현의 이이사와 겐지(飯澤元治) 등이 경영하였다.
17) 『山口縣水産試驗報告』, 『富山顯産試驗報告』, 1909년.

위와 같은 배경에서 초기의 통어는 대체로 영세하였으므로 왕복하는 날이 많이 소요하게 되면 조난의 위험도 급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단일 경영이 많았으므로 하루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대안이 없었다. 통어자는 대부분 장년의 남자였고, 또 장기간 외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범죄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 정부는 이주어촌의 경영이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러일전쟁 무렵부터 일본의 인구 증가와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등에 따라 대만·사할린 등으로의 식민적 이주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농업이민과 서로 호응해 이주어촌의 건설로 나타나게 된다.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산업·경제면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인의 이주어촌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극동의수산』은 통제림제조 등 수산제조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자료 출간 전인 1910년대 초반에서 1920년 중반까지의 조선의 수산제조업은 전통적인 조선식 제조법에서 일본식 제조법으로의 개량·시험기였다. 1912년 시작된 한천(寒天) 제조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간유, 기터 부산물 및 해조 이용에 관한 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시험의 결과는 바로 민간의 운영으로 옮겨 이를 지도하고 개량·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캄차카반도 내 일본 통조림제조회사의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캄차카반도를 배경으로 한『極東之水産』표지와 발행현황



2. 목차 및 주요내용

1) 목차

1. 캄차카[堪察加]의 일반현황	
1) 위치	
2) 면적 및 지세 : 면적 114만 평방 露里	
3) 인종 및 인구	**3. 캄차카의 통조림업**
4) 기후	1) 니치로 어업회사의 통조림 공장 설비
5) 교통	2) 최근 3년간 통조림 제조량
6) 행정	3) 통조림의 판로
7) 토착민의 생활상태	4) 게 어업 및 통조림 가공업
8) 교육	5) 공선(工船)을 이용한 통조림 제조업
9) 위생	
10) 종교	**4. 염어(鹽魚)의 제조**
11) 캄차카의 조선인 상황	1) 각종 염어의 제조법
	2) 염어의 판로
2. 캄차카의 어업	3) 염어의 가격
1) 총론	
2) 연어·송어 어업의 연혁	**5. 캄차카에서 가능한 수산 제조업**
3) 일본인 경영 어장	
4) 러시아인 경여 어장(연어·송어)	**6. 러시아의 국영 어업**
5) 각 감시구(監視區)의 어장 임대료 및 어획 제한량	1) 국영 어업의 발단
	2) 국영 어업의 경영법
6) 최근 3년간 중국인 투자 금액 및 생산금액	3) 개인 어업과 국영 어업의 관계
7) 생산물 수출국 및 금액	**7. 결론**
8) 어구의 종류 및 구조와 사용법	
9) 캄차카의 올해 어업 현황	
10) 어획 종류와 크기	
11) 최근 3년간 어획량	
12) 니치로(日魯) 어업회사의 어업설비	

2) 조선인 관련 주요내용

1884년 조선과 러시아 간에 맺은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새로운 차원의 한인 이주의 전환점을 갖게 한다[18]. 이 조약에 따라 조약체결 이전에 러시아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각 부류에 해당하는 한인거주에 대한 상이한 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19]. 이

시기 이후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상인들의 이주 또한 증가하게 된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오데사와 블라디보스토크을 잇는 항로개설로 러시아측의 농민들을 극동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시기와 맞물려 1892년에는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한인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러일전쟁 이후 잠시 주춤하긴 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 책이 출간된 시기에는 러시아 내 한인의 수는 1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20].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는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이 90% 정도였다. 이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는 점,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 그리고 한인 이주민들이 대부분 빈손으로 이주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농업, 광상, 부두, 산림채벌, 공업, 운수 및 철도분야에서 종사하였다[21].

캄차카주 및 사할린주 지역의 한인이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27년 소련의 신경제정책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주자들은 축산과 농업에만 종사하는 비율이 45%, 농민으로서 호수와 어업만을 종사하는 비율은 25%, 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 그 밖에 소매상인과 밀수업자 등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0%로 나타나고 있다[22].

『極東之水産』 본문에 기록된 캄차카반도 거주 한인의 수는 1921년~1922년(대정10~11년) 기준으로 페트로군(ペトロ郡)에 200명, 아나도리군(アナド郡) 3명, 오코츠크군(オコツク郡) 170명으로 총 373명이다. 한인이주민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출신이고 드물게 경성 또는 평안남도가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들의 마을인 '신한촌' 출신으로 이 시기 러시아 정치 상황과 맞물려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던 것이 캄차카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어업에 종사하던 한인어부들은 러일어업협정에 의해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연해주 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사할린과 캄차카반도의 연안 고기잡이에 고용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특히 조선인의 생활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간지방에 사는 조선인들은 땔감을 팔아 생활하며 겨울철 생업기반은 수렵 및 물자의 운반이었다. 캄차카반도에서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허가를 받아 누구나 땔감용 나무를 벌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자작나무 등의 잡목을 벌목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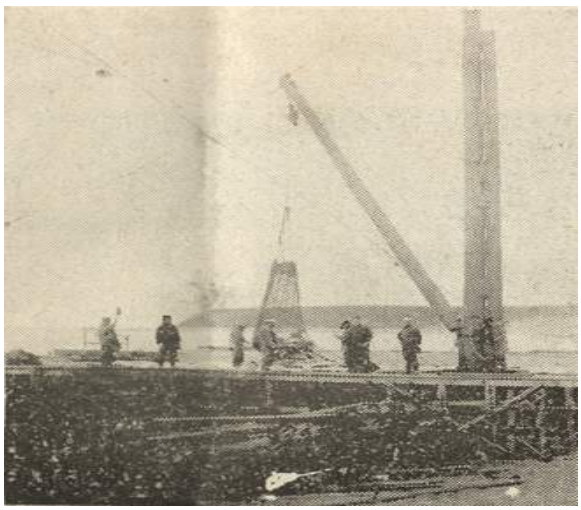
---

18) 이채문, 앞의 글, p. 52.
19) 고승제, 「沿海州 移民의 社會史的 分析」,『白山學報』 11, 1971, pp. 149~168.
20) 부가이(최정운 역),『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1996, p. 8.
박경숙,「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pp. 29~58.
21) 이채문, 앞의 글, p. 54.
22) 김세용,「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自由와 平和』, 三千里社, 1935, pp. 261~278.

특히 어업과 관련한 기록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구 부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여름에는 연어, 송어 어업의 노동자로 러시아인에게 고용되거나 혹은 어업권을 가진 자본가 혹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인망(地引網)을 빌려 어업에 종사하며 겨울철에는 산간지방에 들어가 수렵 또는 운반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레니오 마을의 조선인들은 공동으로 그물을 소유하여 하구 가까이 10여 리를 오르내리며 어업에 종사하고 그 어획물은 국가 운영의 제어구(製魚區)[23]에 팔거나 물자와 교환하였다.

일본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서적이므로 조선인에 대한 당시 인식이 기록되어 있다. 캄차카반도에 이주한 한인들의 출신을 불평분자, 무뢰배, 불한당(不汗黨) 등으로 지칭하는 반면 1921년(대정 10년) 기근 때 일본이 도와준 것을 근거로 한인들이 일본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비에트 정부와의 관계와 일본 어업회사인 니치로어업회사의 통조림공장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조선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캄차카의 어업 활동 모습(극동의수산)>

부두전경	하역 후 홍연어
	

Ⅲ. 맺음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極東之水産(극동의수산)』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14년이 지난 1924년에 출판된 수산업 전문서적으로 특히 캄차카반도의 수산업 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이주한 한인과 관련해 연해주 지역에 대한 자료들은 러시아측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24년 일본에 의해 출판된 러시아 캄차카반도 수산업 현황을 서술한 전문서적에 이주한인과 관련한 기록을 남긴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추정된다. 이 시기 일본은 제조업·자본수출 그리고 금융지배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확

23) 연어, 송어, 청어, 대구 또는 게 등 수산업을 위해 대여한 특정지역.

고하게 다지고 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본문 속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머나먼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기량, 근면, 그리고 성실함을 일본인들도 특별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자료『極東之水産』자료를 통해 1920년대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거주했던 한인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데 있다. 특히 일본의 시각에서 한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본문 속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한국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극동의수산』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캄차카반도 거주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산업 관련 전문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수산업에 집중하였는지와 함께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내 수산업현황, 어업 및 통조림 제조 등 전문적인 부분이 서술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한인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전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극동의수산'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고승제, 「沿海州 移民의 社會史的 分析」,『白山學報』11, 1971.
김세용,「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自由와 平和』, 三千里社, 1935.
박경숙,「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박보리스·부가이 니콜라이(김광한·이백용 역),『러시아에서의 140년간 : 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2004.
부가이(최정운 역),『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1996.
요시다 케이이치(박호원·김수희 역),『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019.
이상근,『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이재혁,「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한국시베리아연구』제15권 1호, 2011.
이채문,「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한국인구학』 제23권 2호, 2000.

Праздничные традиции у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Д.И. Капарушкина[1)]

Введ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е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и урбанизация Арктики остро поставили пробл ему сохранения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сильнейшее влияние доминирующих культур в обществе не 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ей к сохра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материаль ных основ культуры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ведет к потере э 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вымиранию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как этническ их общностей.

Тем не менее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не перестает диктовать жесткие условия транс формац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этн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Если в начале XX-го столетия огр омный удар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моделям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несли процессы советской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и унификации,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утр атилась большая часть элементов бытовой и духов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т о в наше время российский Север,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 ы в связи с глобальным потеплением, демонстрируют «яркие» примеры исчезнов ения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Впроче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пустя многие кр изисные дл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десятилетия, с появлением движений малочисле н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началась активизация и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знания.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дает о себе знать образовавшийся между поколением носителей традици о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культурный провал, во вр емя которог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ередавались и не применя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р одные знания: стал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язык, тра диционный быт и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

1) Исследователь Центра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Пэчже» (diana_jang@daum.net).

ых кадров.

Вышеописанные проблемы не обошли стороной и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В наст оящее время назрела остр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х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 ытности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б ытового 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уклада жизни, сохранение идентичности народа и ее о дновременная интеграция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формирова ние прави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культуре эскимосов у доминирующего числа на селени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о-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и пр.

Акту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На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тносят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к группе юп иков и юитов, особо выделяя их из общей группы инуитов, а также их еще назы вают азиатскими или сибирскими, или чукотскими эскимосами. Они принадлежат к сам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народ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их население составл яет едва 1730 чел. Далее в статье будет говорится именно о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 ах с целью различения их от 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аляскинских, канадских и г ренландских эскимосов.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население Чукот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в нем прожива ет около 148 ты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Чукчи – ок оло 11 тыс., эскимосы – ок. 1730 чел., эвены – ок. 1200 чел., чуванцы – ок. 700, юкагиры – ок. 100 чел., коряки – ок. 50 чел. Так коренное насел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немногим менее 30%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Чукотки.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малочисл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ие эскимосы делятся на ряд племён, называемых по м 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эскимосов – уэленцы, науканцы, чаплинцы, сиреникские эскимо сы.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 это дети от межэтнических браков. Нос ителей эскимос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них осталось очень мало. В 1997 г. полностью исчез юго-восточный сиреникский диалект. На о. Св. Лаврентия находится изол ированное поселение, только там и говорят на эскимосском языке.

У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есть свои тр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оселка – Новое Чаплин о, Сиреники и Уэлькаль. Новое Чаплино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елом эскимосо в, оно находится в бухте Ткачен в 20 км к северу от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селка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Провидения. Данное село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в 1959 г. на месте с тарых чукотских кочеви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жителей Нового Чаплина – выходцы из

закрытого властями в 1959 г. эскимосского села Старое Чаплино (Уназик) и их п отомки. Старое Чаплино было самым крупным поселением сибирских эскимосов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 а также важнейшей точкой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жителей Чук от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Аляски (о. Святого Лаврентия) [Krupnik, Chlenov 2007:68]. В 1930-1940-е гг. в Старое Чаплино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жители закрывавшихся мал очисленных эскимосских поселков – Авана, Кивака, Чечена, Сиклюка. В Новом Ча плине проживают 467 чел. Из них эскимосов – 334 чел., чукчей – 102 чел. Чукчи составляют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двух номинально эскимосских национ альных сел [Опарин 2013:54]. Чукч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эскимосских традицион ных праздниках и ритуалах, как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как приглашенные. Береговые ч укчи имеют свои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безусловно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оказали вли яние на эскимосские.

В Сиреникаx проживают 507 чел.: из них 240 эскимосов и 181 чукча [Там же, 55]. Если Новое Чаплино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считалось образцовым культурным се лом района с сильной школой и известным в регионе народным ансамблем, то С иреники отличались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оленеводс тва, звероводства и морского зверобойного промысла. Новое Чаплино сохранило свое культурно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в Сиреникаx же в 1995 г. закрылас ь звероферма, осталась одна оленеводческая бригада, наблюдается кризис в зве робойном промысле. Отличитель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Сиреников является богатый л окальный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каждый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бъект имеет свое эск имосское название, известно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м коренным жителям.

Интересно, что эскимосы Чукотки вели активный обмен с эскимосами Аляски д о 1930-х гг. Но в виду объектив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ичин 1948 г. граница была закрыта. Только в сентябре 1989 г. между СССР и СШ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 ние о безвизовом взаимном посещении между эскимосами Чукотки и Аляски прод 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до 90 дней. В то время связи эскимосов России и США стали ра звиваться так стремительно, что владельцы магазинов и таксисты в аляскински х городах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советские рубли. Когда аляскинские эскимосы прие зжали на Чукотку, российские эскимосы проводили ритуал, который заключался в бросании камней в приближающиеся лодки с Аляски. Это делалос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тавить чужих духов гостей в море и не пустить на берег. Когда гости с Аляски выходили на берег,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обязательно переступить через ко стер для своеобразного сакрального очищения. Во время таких визитов устраива лись шумные празднества, торговые обмены и застолья.

Однако не только в пост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но еще и до 1930-х гг. Америка игра ла куда более важную роль в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Чукотки, чем Россия. Еще с середины XIX в. американские, британские и скандинавские китобойные шхуны каждую весну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у побережья Чукотки и нанимали местных мужчи н на работу гарпунерами. Люди Чукотки говорили больше на чукотском, эскимо сском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чем на русском. С тех пор в языке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присутствуют многие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слова. Например: ка нти – конфеты (candies), манит – деньги (money), вляу'а – мука (flour), пуси – к ошка (pussy), папа – перец (pepper). Однако в 1930-50-е гг. советские власти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закрыли почти все эскимосские поселения – около 80 % эским осского народа было переселено. Так Наукан – древняя эскимосская столица бы ла опустошена и заброшена в 1958 г. К счастью,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тиви стов из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и богатым традициям это место в 2019 г. вошло в российский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список объектов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Акту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праздников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Приступая к описа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праздников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 ов, оговоримся, что, как известно, традиции, обряды и обычаи трансформируютс я со временем, впитывая в себя характерные черты происходящих семейных, соц иаль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оставаясь, тем не менее, частью динамичной т радиции народа.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традиция, в частности пр аздничная традиция,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гибкое понят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идеи, практики и институты, передающиеся от одного поколения к другому и из меняющиеся в процессе» [Oosten, Remie 1999:2].

На праздники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несомненно, повлияло основное на протя жении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занятие народа – морской зверобойный промысел. Э то отразилось на всем празднично-ритуальном поведении народа. Обрядами обя зательно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морской охоте и процесс самого промысл а, а в случае удачной охоты на морского зверя проводились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праздники.

Такж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исходя из вышеописанных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и х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эскимос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овокупность частных семейных традиций, нередко сильно разнящихся друг с д ругом, однако не теряющих из-за этого своей цен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ая эскимосска я культура понимае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не как остаточный элемент былой пер

возданности, а скорее, как актуальный набор практик" [Kulchyski 2006:158] и реа льных действий, совершаемых с разной степенью регулярности. Тем не менее, не смотря на остаточный характер праздников эскимосов, сохранившиеся историогр афические данные подтверждают их сакр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собенно тех, которы е связанны с морским зверобойным промыслом.

Первые упоминания о праздниках эскимосов содержатся в записях русских пут ешественников середины XVIII в. О корякских и чукотских китовых церемониях п исали С.П. Крашенинников, Г.В. Стеллер, Г.Ф. Миллер и др.

В нач. XX в.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ые материалы составили В.Г. Богораз и В.И. И охельсон. Наблюдения 1920-х-1-ой половины 1930-х гг. принадлежат советским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П.П. Иванову, Г.А. Меновщикову, И.К. Воблову, Н.Н. Беретти, С.Н. Стебницкому. Да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оставили описания как ритуалов, так и об рядов эскимосов[2].

В связи с совет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ей промысловые праздники начали уходить и з жизни эскимосо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о 2-ой половине XX в. этнографы могли о сновываться только на данных, полученных в экспедициях. Так о китовом праз днике науканских эскимосов на основании рассказа очевидца писал Г.А. Меновщ иков. Остались очевидцы, которые имеют опыт участия в возрождаемых в поздн е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эскимос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иках [Меновщиков 1959, 1977, 1979].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источников по современному состоянию праздн иков эскимосов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езультат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ений, расспросов, а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х музейных или публичных реконструкций и реп резентаций. А историография данной темы ограничена описаниями и не содержи т аналитических и сравните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ель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состоит в обзор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ритуалов эскимос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кита, праздника моржа и праздника охоты, в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их фор

2) Под ритуало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совокупность обрядов, тогда как под обрядом - дейст вие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ное, частное. Как ритуал, так и обряд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символичн остью, отсутстви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утилитарного значения, однако ритуалу, помим о масштабности, присуща также демонстративность, т.е. наличие хотя бы небольшого круга зрителей. Ритуал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 наличие коллектива участников, а также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участвуют в нем, а обряд может быть соверш ен и одним человеком, скрытно от посторонних.

мат, обряды и материальные атрибуты. При чем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итуал рассмат ривается как творческий, резонансный процесс, аккумулирующий достижения сме ж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практик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рождающий социальные, культ урные и даже техн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Праздники современных эским осов также позволяют увидеть обусловленную этой креативностью символическу ю «многослойность» праздников. А многообразие обрядового поведения дает осн ование говорить о постоянно происходившей ритуализации актуальных обществе нных событий, т.е. они включа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е церемонии и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 творялись в сакра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радиционн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эскимосов

Одной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ритуальных практик эскимосов является ко рмление Ах'к'ышак' духов природы и духов умерших людей. Этот обряд соверша ют большин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эскимосов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тдельных обращенных в христианство эскимосов[3]. Многообразие поводов, мест и материальных объекто в кормл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для классификации этого к ультурного явления. Однако церемония кормления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организова нной и ритуализированной и составляет неотъемлемую часть всех эскимосских п раздников.

Объясняется обычай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традиционным анимистическим мировозз рением эскимосов, которые верят в духов, живущих в различных явлениях приро ды, видят связь человека с окружающим его миром предметов и живых существ. Главным понятием религиозн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эскимосов является Анирниит, к оторый учит, что оскорбление душ всего живого и неживого творения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смерть. Так, например, эскимосы верят, что северное сияние – это души у мерших детей, играющих в небе в мяч, а дождь – это слезы душ умерших, перес елившихся в верхний мир. Анирниит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Силла – основной составл яющей всего существующего. Аналогичное понятие существует в западной филос офии и называется эфир.

Помимо хозяев (или богов) природных стихий в эскимосском мировоззрении су ществуют злые духи (или демоны) Туурнгаит, которых может видеть шаман Анга

3) Проблема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авославных и пятидесятнических христиан и приверженцев традиционны х верований среди эскимос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статье Д.А. Опарина «Поминальный обряд азиатских эск имосов» (2013).

куит. Шаман может общаться с ними, заклинать их или же советовать людям, ка кие ритуалы следует провести, чтобы умилостивить злых духов. Однако в отлич ие от шаманов в други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ах, эскимосский шаман не являетс я вождем, он лишь целитель и помощник в трудных ситуациях. Например, он мо жет вызвать хорошую погоду, чтобы вернуть потерявшихся охотников, отгоняет болезни от детей. Эскимосы считают, что шаманами рождаются, и эта способнос ть проявляется,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время.

Важное место во всех эскимос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занимает Морская хозяйка – Сед на, мать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осатка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покровите лем морских охотников. Убиение косатки, навлекает на охотника смерть. Косатку необходимо всегда задабривать жертвами Ах'к'ышак' или табаком. По поверью л етом косатка живет в море, а зимой она выходит на берег и обращается в волк а, чтобы помогать охотникам.

За равновесие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мире эскимосов отвечают богини души Пана и Пинга, которые судят души и отвечают за их реинкарнацию, направляют их л ибо в Верхний, либо Земной, либо Подземный мир.

Праздничная кухня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всех праздников является приготовление праздничных б люд.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езона к первым праздничным блюдам эскимосов относится суп из плавников моржа, который готовится из верх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и кончика зачаточного хвоста, к ним добавляются остатки рыбы, водорослей и засушенных трав. Суп очень жирный и достаточно специфически пахнущий.

Помимо мяса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эскимосы ценят мясо оленей, т.к. они не являют ся оленеводами и оленье мясо ценится больше всякого мяса морского животног о. На праздник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ают блюдо из молодой оленихи – важенки. Ее ра зделывают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без пролития крови. В ее же снятую шкуру спускают всю кровь. В кровь добавляют куски печени, легких и сердца. От этого блюда и дет сильный запах свежей крови.

На закуску подаются соленый в морской воде холодный лосось или сушеная рыб а с пронзительным запахом как у ската. Непременно готовят ман'тāк' – это блю до из кожи кита с салом. Кожу и жир кита нарезают небольшими кусочками и е дят сырыми. На Чукотке ман'тāк' макают в соевый соус, перчат и солят, а на А ляске ман'тāк', посыпают специями и запекают в духовке. Кожа с подкожным ж

иром серого кита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калорийным блюдом эскимосов: 100 г содержи т 470 калорий.

Основным праздничным блюдом является Копальхен (игунак, тухтак), которое готовят из мяса моржей, оленей, китов, оленей или уток. Оленя, до полного опу стошения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ого тракт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е кормят, потом душат. Не потроша, погружают в болото целиком и засыпают ветками. Если это морское млекопитающее, то его также опустошают, охлаждают, заворачивают в его же ш куру и закапывают на линии прибоя, присыпав галькой. Перед подачей мясо-иг унак, замораживают, режут пластинками и посыпают солью.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ски мосы получаю ценные ферменты и витамины из мяса, недоступные для них. Ед инственный недостаток этого блюда – э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рупного яда. Непременно на каждый праздник подается десерт – мороженое-акутак, которое готовят из смеси полярных ягод и тюленьего жира, иногда с кусочками рыбы. Г отовая смесь красиво приправляется снегом или колотым льдом.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аздники эскимосов

Праздник начала весенней охоты на моржей «Атыгак» или **Праздник спуска ба йдары на воду** празднуется в конце весны или начале лет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вкл ючает в себя важную ежегодную церемонию возобновления охоты на моржей и ц еремонию почтения и умилостивления душ моржей, добытых на охоте в прошлы й сезон.

Как правило, сезон охоты на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начинается в конце весны или начале лета. Та семья, которая имеет байдару, а их имеют далеко не все, с помо щью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соседей спускает ее к морю. Пока мужчины заняты лодко й, женщины готовят описанную выше праздничную еду: варят мясо, делают кот леты из мяса, сала и нерпичьего жира, а также блюда, приправленные из засуш енных корней и трав. А затем все взрослые члены семьи, как мужчины, так и ж енщины начинают раскрашивать себе лица черным графитом или сажей, рисуя н есколько линий вдоль носа, на подбородке, под глазами. Это составляет часть магического обряда. Количество этих линий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о с тем морским ж ивотным, которое, как считает эта семья, приносит им счастье, – с моржом, тюл енем, китом или нерпой. Затем все надевают праздничную белую особую одежду, сшитую из кишок морских зверей. Затем все идут к берегу моря, несут с собой п риготовленную еду. Хозяин байдары режет принесенное мясо на мелкие кусочки

и бросает их в море и в воздух. Это жертва Ах'к'ышак' духам ветра и хозяйке м орских зверей,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удача на охоте. Часть мяса бросают тут же в разожженный костер – это жертва духу огня.

Для праздника начала охоты на моржей важно знание охотника о том, что ког да он убивает моржа, он не должен убивать его душу,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моче вом пузыре животного, т.к. мочевой пузырь необходи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перевоп лощения животного в новом теле. Пузыри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добытые охо тниками в тече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собираются и во время весеннего праздни ка начала охоты «Атыгак» надуваются. Надутые пузыри убиты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оржей и приносят в мужской дом,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собраний и важных церемоний. А после пяти-шести дней праздничных гуляний пузыри возв ращают в море.

Праздник моржей «Наскуныхкылык» проходит как правило в конце июля, в пер иод штормовой погоды. Тогда охотники заканчивают свою охоту на моржей и во звращаются со своей добычей, и наступает время очередного праздника. В день праздника вынимали из ледника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ую тушу моржа тухтак. Хозяин праздника или приглашенный им шаман начинал бить в бубен, созывая на угощ ение разных духов,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жизнь, здоровье и охотничья удача чело века. Также хозяин относил часть приготовленной еды на берег моря, бросал ее небольшими кусочками в воздух и в воду со словами к духам: «Собирайтесь сюд а все и кушайте!» Мясо моржа делят между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гостями, а череп моржа относят на отдельно отведенную скалу, являющуюся жертвенным местом Седне – хозяйке морских зверей. Аналогично празднику начала весенней охоты «Атыгак», он празднуется по очереди в каждой семь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семья должна пригласить к себе всех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Праздник кита «Поля» начинается только тогда, когда особо удачливому эски мосу удается забить кита. Кит – это главное промысловое животное эскимосов, но и самое опасно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хоты, и кит – самая желанная добыча, т.к. он приносит много мяса и жира для всего поселка, и им можно надолго запасти сь впрок. Праздник кита устраивает тот, кто загарпунил кита. К этому человеку собираются все жители поселка. Кита разделывают прямо на берегу и тут же ег о едят. Непременно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делают изображения китов: это могут б ыть деревянные фигурки, которые подвешивают в разных углах жилища. Во мно гих семьях амулет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ита сохраняются долгое время. В честь кит 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исполняют танец, воспроизводящий все этапы охоты

на него. Любопытно, что этот танец исполняется сидя на одном месте: двигают ся только руки и голова. Во время танца используется мелко размельченный гра фит, который подбрасывается в воздух, и тем самым символизирует фонтан, вы пускаемый плывущим в океане китом [Johnston, 1992]. На празднике кита непрем енно приносились жертвы Кэрэткуну и Седне – хозяевам всех морских зверей. Ку 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о опускание в море китовых костей. Эскимосы считал и, что в морской воде кости превратятся в новых китов, 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сн ова появятся у берегов Чукотки.

Общие для всех эскимос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принципы

Коснемся некоторых общих принципов эскимос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Известный исс ледователь эскимосских традиций Г.А. Меновщиков отмечал отсутствие у эскимо сов общ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л те церемонии, которые он наблюдал в Сиреникax, как «домаш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о той причине, ч то «у каждой семьи или группы родственных семей уже существует свой произво д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на который приглашают соседей». Г.А. Меновщиков связыв ал социокультурную подоплеку эскимос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с тотемическими предст авлениями, отмеч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тотемов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Бог-т отем у каждой родственной группы или семьи разный: у одних это морж, кит, у других – олень, песец или какой-либо иной тотем-покровитель» [Меновщиков 1959:76-77]. Данные И.К. Воблова также подтверждают это положение. Он пишет, что отдельным семьям приносит счастье какой-либо определенный морской звер ь – морж, тюлень, лахтак, кит или косатка [Воблов 1952:328]. Т.е. охотники могл и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исвоение тотема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они добивались опреде л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его добыче. Получив определенный статус, охотник закре плял его в вещественных символах (фетишах) и каком-то определенном личном празднике, которые он передавал по наследству. А образ данного тотемного зве ря воспроизводился в раскрашивании лиц во время этих семейных торжеств. В э 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камерный характер праздников эскимосов, откуда и происходят все различия.

Кроме того, праздники могли различаться по масштабу, поскольку удачливые охотники накапливали много добыч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угощения и могли приго товить более сытное пиршество, а скромная добыча менее удачливых охотников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малозамет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Богораз 1939:89]. Сказанное справед лив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ромыслу не только моржей, но и других морских животн

ых.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вы ливались в своеобразный смотр, привносивший в жизнь дух конкуренции, во вре мя которого подтверждались или пересматривались репутации глав семейств. Л юди, добивавшиес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изнания, должны были устраивать праздни к. А те семьи, у которых не хватало продуктов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го праздника, объединялись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Гурвич 1962:239]. А зажиточные эскимосы обладали большим авторитетом и могли держать в своих руках все на селение села [Хаковская 2012:178- 181].

Структура праздников эскимосов обычно трехчастная. В ней вычленяются: вст реча животного, его «увеселение» и проводы. Однако по ряду причин данная ст руктура могла становиться нечеткой. В обряде встречи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отношен ие к животному как к желанному гостю: животное встречают шествием, танцами, заклинательными выкриками, символически поят и кормят. В ходе разделки обя зательно сохраняли целостность животного, т.е. создавали его символического д войника, который воплощал кита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й в жилище. Фигурку животн ого могли делать из кусочков кожи и мяса, или других подручных средств. Обя зательность этих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ялась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эффекта присутствия н а празднике добытого животного, что наводит на аналогию с похоронным обря дом, когда тело усопшего обязательно находится после смерти в жилище.

Что касается раскрашивания лиц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ов моржа или кита, это та кже нельзя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однозначн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раскрашивание вып олняет маскирующую функцию – утаивает от моржа или кита, присутствующего на празднике, истинные лица тех, кто их убил. С помощью раскрашивания все у 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становятся одним целым, солидаризуются со своим тотемом и отрицаю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его убийство, разделывание и поедание. Более то го, чтобы обмануть кита и убедить его в непричастности убийства, празднующие долж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иту сцену его добычи какими-то посторонними лю дьми. Для этого используются танец кита или же спектакли [Хаковская 2018:80]. Цель спектакля состоит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прочных связей с воображаемым «китов ым» миром, в который посылается сигнал – здесь, на земле, весело и радостно, сюда стоит вернуться. Животному и его невидимым сородичам демонстрируют д остаток, предлагают обильное угощение, готовят щедрые гостинцы на «обратны й пу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ит в праздниках берегов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ступает как п очетный гость, который своим присутствием мотивирует людей к общему весель ю. Участники пляшут, играют на бубнах, участвуют в различ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Та м же, 78]. Имеет место пиршество и даже объедание среди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Гетх

ман 1958:34-35], а также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взаимный обмен вещами [Меновщиков 1979:207]. Добытый зверь в этой риту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редстает как существо, не умерщвленное и «присвоенное» людьми, а все ещ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обладающ ее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ей, лишь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находящееся в обществе людей. П одобающая встреча и проводы гостя устанавливают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 потусторо нним миром, что служит залогом успешного промысла в будущем. Так тотемичес кие установки промыслового культа влекут за собой практики своего рода телес ного оборотничества, желания людей скрыть свой истинный облик, что проявля ется в уже упомянутой разрисовке лиц, а также во взаимном надевании масок н а людей и на добытых животных. Под таким углом зрения праздники предстают как лицедейств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хотниками и всеми присутствующими себя не т еми, кем они являются на самом деле [Хаковская 2018:80].

Собранные различ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сведения дают основание полагать, ч то охота в глазах коренных жителей Севера являлась не простым умерщвлением животного, а установлением с ним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следствие котор ых добыча добровольно сдавалась охотнику. Удачную добычу аборигены воспри нимали как согласие животного на добровольную смерть [Виллерслев, Витебски, Алексеев 2016:157-159]. Н.Н. Беретти указывал, что исход китовой охоты зависел от желания самого животного, и, если по всем признакам выходило, что кит не желает быть добытым, то промысел прекращали [Беретти 1929:36-37, 77].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таких праздничных церемоний вблизи сел образовывались с воеобразные памятники из голов и костей добытых животных, которые в время праздников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гаданий, а затем становились сакральны ми объектами и жертвенниками, которые оберегали и кормили.

Другие праздничные традиции эскимосов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е данные упоминают и о других эскимос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о днако они не сохранили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у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Это праздник и Мочевого пузыря «Накачук», Праздник мертвых «Эльрик» и Праздник посланни ков «Кевгик». Однако элементы этих праздников присутствуют в ритуалах празд ника моржа или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у эскимосов отмечаются официальные праздн ики, которые известны повсеместно – это День рыбака (2-ое воскресенье июл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инуитов (7 ноября), Новый год (1 января) и Рождество (7 я

нваря).

Но даже на этих праздниках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аздничные эле менты. Так, например,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обряд умилостивления и благодарения морского хозяина Кэрэткун проводится в день Рыбака и посвящен приходу перв ых лососей. Согласно поверьям,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ойно встретить первую рыбу, чт обы идущая следом за ней другая рыба знала, что в этих местах живут гостепр иимные люди. В этот день женщины заранее готовят национальную утварь, разв одят костер и встречают первых рыбаков приветствиями под звуки национальн ых мелодий. Через жабры первой пойманной рыбы продевают ивовую ветку, пос ле чего рыбу проносят вокруг костра, имитируя крик чаек. Хозяйки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из рыбы.

Непременно вс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 тия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играми 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В них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эским осы, но и жители всех соседних поселений: чукчи, русские, коряки и др.
Особо следует выделить среди эскимосских игр – соревнования ушами, которые заключаются в перетягивание нитей ушами или ношением тяжестей на ушах впл оть до 5 кг. Та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ебезопасны, поэтому в них участвуют только в зрослые мужчины.

Женщины, иногда и дети, соревнуются в голосовых играх «катаджак» – одна и з необычных разновидностей горлового пения. Двое, а иногда больше, участниц встают или садятся друг напротив друга. Первая участница, издавая отдельные звуки или произнося слоги, задает ритм, вторая же должна, подхватив его, зап олнить ритмичными звуками возникающие паузы. Причем резонатором, если учас тницы вплотную друг к другу, служит рот соперницы. Побеждает та, кто дольш е продержится и не собьется.

Ни один праздник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Эскимосские посе ления известны своими прыжками на моржовой шкуре, которые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 анены и в среде чукчей. Сухую моржовую шкуру растягивают, на концах ее дела ют прорези,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держать шкуру руками.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стан овится на ее середину, и его в таком положении подбрасывают вверх: только то т считается ловким, кто может удержаться на ногах при приземлении. Самые ло вкие, когда их подбрасывают в воздух, перебирают ногами, как будто шагают, и приземляются стоя. Нередко прыжки на шкуре принимают характер состязания. Игроки выступают по двое, чаще всего юноша и девушка. Оба взлетают в вверх,

падают вниз; партнеры дергают шкуру, и снова прыгуны взлетают в вышину. Г оворят, что в былые времена прыжки на моржовой шкуре использовали для выс матривания китов в море.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имеют свой воспит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ажно, чтобы мо 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выросло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ым и крепким, но и добрым и справе дливым.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воспитывают в молодежи ловкость и силу, необ ходимую для охоты и в труд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а также добродетель, терп ение и любовь к ближним.

Самы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являются прыжки (в д лину, на одной ноге, с колена, с препятствием через нарту или байдару и пр.), бег (с грузом на ногах, со снегоступами, командный или эстафетный бег).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 командные игры с мячом. Например, в игре «Анкакусельык» играющие делятся на две команды. В каждой команде выбирают «мать» (обычно девочку), умеющую подбрасывать мяч вверх руками, плечами, ногами. Остальные члены команды – ее «сыновья». Играют обычно около сугроба. На его гребне (ил и на любом другом возвышении) стоит и подбрасывает мяч «мать», а внизу нахо дятся ее «сыновья». Если девочка уронит мяч, внизу его ловят и передают свое й «матер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се мячи оказались только у одной девочки, она брос ает их вниз, а «сыновья» снова ловят. Побеждает та команда, у которой чаще ок азывались мячи.

Другая игра «Анкальык» похожа на баскетбол, только без кольца с сеткой. Игр ающие делятся на две команды. Члены одной команды перебрасывают мяч друг другу, а в это время члены другой стараются его отобрать, причем мяч нельзя слишком долго держать, надо быстро передавать его другому.

Среди командных игр нельзя не назвать перетягивания. У эскимосов помимо п еретягивания каната (обычно ремня), есть перетягивание палки, когда соревную щиеся садятся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на пол, плотно касаясь друг друга ступнями ног. По команде ведущего они начинают тянуть каждый к себе палку. Побежден ный встает.

Другой вид перетягивания «Атилцан», когда соревнующиеся садятся друг прот ив друга на пол «по-турецки» и перетяг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с помощью средних па льцев.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 развивающая ловкость охотника игра на метание копья на ра сстояние или в цель. Очень хорошо сплачивает команду игра «Ныгапшагок» - ме тание аркана. Играющие делятся на две команды, у каждой одинаковое количес тво чаатов(арканов). Команды образуют большой «коридор». Ведущий должен про бежать по «коридору», таща за собой на трехметровой веревке моржовую нижнюю челюсть. Побеждает та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поймала больше «моржей».

Среди игр есть также игры с камешками, игры со скакалкой, игры похожие на хоккей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Заключ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аздничные церемонии эскимосов, обычно связаны с охотой.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целый комплекс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ых действий, связанн ых с различными взглядами на роль человека и добытого на охоте животного.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особо выделяются обязанности люде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живо тному, выражающиеся в разнообразных моделях ритуального поведения. Множес твенность ролей человека и животного обусловливает многослойность праздник а, его открытый и аккумулирующий характер. Животное предстает как сородич, временно усопший, но способный к воскрешени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аздничные об ряды аналогичны похоронным обрядам. Животное – это гость,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 шедший к людям, поэтому с ним проводятся совместные трапезы, игры и пляск и, обмен подарками. Особенно праздник кита 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ярко выраженную тенденцию становиться обобщающим в социальном плане праздником – по прод олжитель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числу участников, по общей вовлеч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 я всего поселка. При этом праздник кита не утрачивал личностного характера, как другие небольшие праздники, тесно связанного с персоной устроителя праз дника, обычно в роли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али зажиточные и удачливые в промысле члены сообщества.

В заключение отметим, что небольшое число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культур е и традициям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и недостаток экспеди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г оворит о недостаточном внимании к проблемам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Такое пре небре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ривело к уменьш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утере язык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радиций. В отличие от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наблюдае тся большое оживление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эскимосов Аляски, Канады и Гренл андии благода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и нов

ым законам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Тем не менее большинство науч ных работ говорят о большой ассимиляции и христианизации этих народов, что привело к утере или смешению изнач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с христианскими. Иная ка ртина у российских эскимосов, которые не подверглись христианизации, но с др угой стороны подверглись насильной советизации, в процессе которой не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деторождаемости, что привело к вымиранию народа и его традиций. Все вышесказанное говори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зучения т радиций эскимосов и их возрождения.

Литература

Johnston T. F. A Historical View of Inupiat Eskimo Dance. Anthropologie. Vol. 30. № 3. 1992.

Jolles C. Z. Faith, Food, and Family in a Yupik Whaling Community. With the assistance of Elinor Mikaghaq Oozeva. Washington University Press, 2002.

Krupnik I., Chlenov, M. Yupik Transitions: Change and Survival at Bering Strait, 1900-1960. University of Alaska Press, 2013.

Kulchyski Peter. Six Gestures. // Critical Inuit Studies.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Arctic Ethnography / Ed. Pamela Stern and Lisa Stevens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6. P. 155-167.

Oosten J., Remie C. Arctic Identities. Continuity and Change in Inuit and Saami Societies / Ed. Oosten Jarich, Remie Cornelius. Leiden, 1999.

Беретти Н.Н.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о-Востоке // Записки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отдела Го 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ладивосток, 1929. С. 5-102.

Богораз В.Г. Чукчи. Ч. 2. Л.: Главсевморпути, 1939.

Виллерслев Р., Витебски П., Алексеев А.А.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е как идеальная охот а: объяснение истоков доместикации северного олен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смологии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16. № 4. С. 154-175.

Воблов И.К. Эскимосские праздники //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Вы п. 1.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52. С. 320-334.

Геннеп А. Обряды перехода.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9.

Гехтман И.Е. Золотая Колыма. Очерки о прошлом. Магадан,1958.

Гурвич И.С. Корякские промысловые праздники //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

борник. Т. 4.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62. С. 238-257.
Дюркгейм Э. Элементарные формы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и // Мистика. Религия. Наука. Классики мирового религиоведения. Антология / Сост. и общ. ред. А.Н. Красникова. М.: Канон+, 1998. С. 174-231.
Жорницкая М.Я. Народные игры чукчей и эскимосов // Поле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1975 г. М., 1977.
Иванов П.П.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материал о Чукотке, 1926 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Камчатки. Вып. 1.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Новая книга, 2008. С. 369-407.
Козлов А. И. Современный взгляд на проблемы питания морских зверобоев Арктики. Основы морского зверобойного промысла. М., - Анадырь, 2007.
Крашенинников С.П. Описание земли Камчатки. М.-Л.: Главсевморпути, 1949.
Крупник И.И., Богословская Л.С. Комментарии к фотографиям раздела I // Тропою Богораза. Научные и литературные материалы. М.: Институт Наследия - ГЕОС, 2008. С. 51-52.
Леонова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эскимосов (с. Наукан) // Праздники и обряды народностей Чукотки. Магадан, 1990.
Леонтьев В.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чукчей // На Севере дальнем. Магадан, 1960. С. 127-137.
Меновщиков Г.А. Эскимосы: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об азиатских эскимосах. Магадан, 1959. 147 с.
Меновщиков Г.А. Эскимосы. Магадан, 1959. 17. Меновщиков Г.А. На Чукотской земле: Из записок учителя. Магадан, 1977.
Меновщиков Г.А. Китовый праздник полъа у науканских эскимосов //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 20. М.: Наука, 1979. С. 202-207.
Опарин Д. А. Поминальный обряд азиатских эскимосов и современное ритуа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Нового Чаплино и Сиреников.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 2. 2013. С. 53-69.
Хаховская Л.Н. Морские зверобои Чукотки в период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советских реформ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12. № 6. С. 168-182.
Хаховская Л.Н. Праздник кита в ритуалах аборигенов Северо-Востока России //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018. № 3. С. 73-83.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